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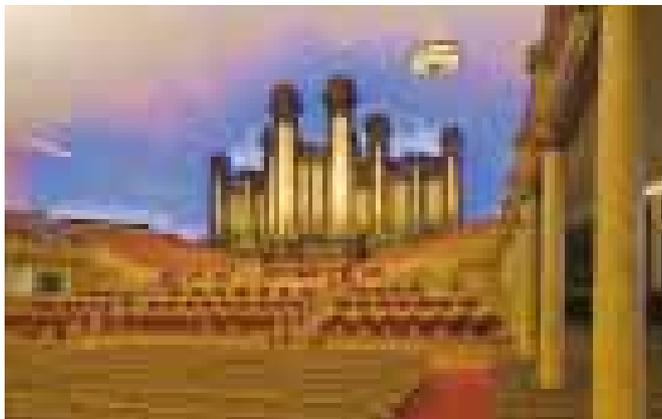
# 리아호나

커버 스토리:

**솔트레이크  
태버넌클,  
34쪽**

진리를 배우는 최선의 방법, 16쪽

새로운 성전 카드, 친15쪽



**솔** 트레이크 태버네클의 수리가 시작되었을 때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템플 스퀘어에 있는 두 개의 위대한 건물은 존경스러운 노부모 같습니다. 즉, 성전은 아버지, 태버네클은 마치 어머니처럼 느껴집니다. 여러 세대의 부모 같은 이 건물들은 굳건히 서 있으면서 빛과 이해와 지식과 사랑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태버네클 수리,” 34쪽 참조

#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제9호

00789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인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정월회:** 보이도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쿠치,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성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비타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이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타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드, 캐리 카스텐,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플슨, 조슈아 피커, 리차드 엠 톰, 제니퍼 로즈, 톰 알 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칼벌리 웹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외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이로우,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버, 지니 제이 닐슨,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렌디 제이 벤슨

통 권: 제498호, 제44권, 제9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송 호

번역 책임자: 박 훈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첨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말타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할라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산할라어, 아메리카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September 2007 Vol. 31 No. 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ag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Newspres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영적 생각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16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 26 영원한 결혼으로의 개심 제임스 웰치
- 34 태버나클 수리
- 44 후기 성도의 소리  
존 형제의 금식헌금 그레그 버고인  
레모네이드와 한 조각의 빵  
아나벨라 디 레이온  
저를 잘 돌볼 거예요 일레인 피어슨  
기억할 수 없는 선물 케리 알 왕스커드
- 48 애독자 편지

### 16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26 영원한 결혼으로의 개심

### 34 태버나클 수리



### 표지

앞표지 사진 촬영: 에이 앵글

뒷표지 사진 촬영: 존 루크

### 친구들 표지

삽화: 맷 스티스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교회 공과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반원들에게 알맞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평범한 인간, 특별한 부름,”**

8쪽: 가족 구성원들에게 선지자에 대해 설명하게 한다. 세상은 선지자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히버 시 김볼 장로, 에녹, 바울에 대한 설명을 소리내어 읽는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마지막 다섯 문단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도자들을 더욱

잘 따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토론한다. 자신의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선물(간식, 사진, 카드)을 만든다.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16쪽: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빈 상자와 통 여러 개를 보여 준다. 동전이나 사탕을 던져서 통 속에 넣어 본다. 어떤 통이 물건을 던져 넣기에 가장 적합한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각각의 통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물어본다.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부분을





1870년경 텀플 스퀘어 사진, 찰스 로스코 새비지

솔트레이크 성전의 초석 너머로 돔 모양의 지붕을 한 테버네클이 보인다. 사진 속의 테버네클은 미완성 단계이며 길이 76m, 폭 46m, 높이 24m인 이 건물은 준공 당시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는 그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였다. 한편에는 1851년 5월 21일에 헌납된 이래로 사용해 오던 어도비 벽돌로 지은 옛 테버네클이 위치하고 있다.

이번 호에 숨겨진 이탈리아어 정의만 반지를  
찾으면서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행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친12 끝없는 미소



30 구주를 인식함



32 벌레가 입안으로 날아든다면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거룩한 땅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주님 봉사하셨네 엘리자베스 리스
- 친6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작은 봉사 행위
- 친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함 줄리 워델
- 친10 친구가 친구에게: 성도들을 가득 실은 트럭 벤하민 데이 오요스 장로
- 친12 끝없는 미소 레이 골드럽
- 친15 성전 카드
- 친16 색칠하기

**청소년**

- 7 포스터: 여러분의 기초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 8 복음 고전: 평범한 인간, 특별한 부름 브루스 알 맥콩키
- 12 함께 끌기 아담 시 올슨
- 30 짧은 메시지  
시현의 밤 리하이 엘 크루즈  
구주를 인식함 제이드 스바르츠버그
- 32 벌레가 입안으로 날아든다면 아론 엘 웨스트
- 39 충분한 금식 릴리 엠 로리머
- 40 번째 조셉 레이 브릴런테스
- 43 알고 있습니까?



친8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함

글의 본문 중에서 찾아본다. 이러한 원리들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

**“벌레가 입안으로 날아든다면,”** 32쪽: 곤충 혹은 곤충의 사진을 보여 준다. “이 벌레를 먹고 싶나요?”라고 물어 본다. 글의 저자가 겪은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이집트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해 준 후 요셉이 유혹을 어떻게 “뱉어냈는지”에 관하여 설명한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함,”** 친8쪽: 종이를 접어 8개의 정사각형을 만든다. 이 글에 나와 있는 각각의 요점에 관하여 토론을 한 후 가족들에게 이에

관한 그림을 그리게 한다. 가족들에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종이의 뒷면에 적게 한다.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안식일에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활용한다.

**“끝없는 미소,”** 친12쪽: 갈색 종이를 길게 잘라 나무 장작 모양을 만든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애의 행위가 나올 때마다 “나무 장작”을 한 개씩 추가하여 캠프 파이어를 만든다. 나무 장작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불이 더 밝아진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가족들에게 “나무 장작” 조각을 하나씩 갖고 다음 한 주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적어 보게 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43, 친6쪽
가정 복음 교육, 6쪽	친6쪽
간증, 2, 16쪽	신권, 2, 44, 친2쪽
감독, 8, 26쪽	신앙, 16쪽
개종, 26, 45쪽	아브라함, 40쪽
결혼, 26쪽	악의 영향, 2, 32쪽
계시, 2, 8, 16쪽	안식일, 친8, 친10쪽
금식 헌금, 44쪽	엘리아, 8쪽
금식, 39쪽	영적 사망, 43쪽
독신 성인, 26쪽	예수 그리스도, 2, 12, 31, 친4쪽
모범, 31쪽	일지, 43쪽
방문 교육, 25, 46쪽	자애, 친12쪽
배움, 16쪽	재림, 31쪽
봉사, 34, 친2, 친4, 친6, 친12쪽	조셉 스미스, 16쪽
선지자, 8, 친6쪽	지도력, 8, 26, 43쪽
성신, 16쪽	지혜의 말씀, 30, 47쪽
성전, 2, 친15쪽	총관리 역원, 8쪽
속죄, 2, 12쪽	화함, 12, 25쪽
솔트레이크 태버넬, 34쪽	학생, 40쪽



# 영적 생각

##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마지막 경륜의 시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 곧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회복하셨으며 이와 더불어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에 주어졌던 권능, 영광, 그리고 진리와 권세 모두를 바로 이 위대한 마지막 시기에 회복해 주셨습니다. ...”

“저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요 구주요 주님이시며 친구이십니다. 저는 또한 조셉 스미스가 과거나 지금이나 선지자이며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지구 대회, 2003년 5월 4일)

###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압니다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구요? 제가 오늘밤 이 곳에 모이신 여러분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분이 살과 뼈의 형체를 지니신 분이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우주의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분이 그런

위대한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란 것을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셔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요한복음 1:3 참조) 그분은 창조주이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지상에 오셔서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이셨습니다. 예임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외로이 홀로 자신의 길을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구속주이셨으며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20)가 되셨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신 분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린 소년 조셉을 방문하여 이 사업의 회복에 관해 말씀하신 분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저는 신권이 이 지상에 존재하며 합당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신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성전 의식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위대한 인봉 의식을 통하여 현세와 영원토록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 사업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진리를



저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요 구주요 주님이시며 친구이십니다. 저는 또한 조셉 스미스가 과거나 지금이나 선지자이며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지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 성

전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기에  
합당해지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전은  
여러분들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계시할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모임, 2005년 8월  
4일)

## 현대의 계시

“우리가 현대에 주어지는 계시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삶이 비교적 단순하였던  
과거에 계시가 필요했다면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역시 계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구  
역사상, 인간이 지금보다 더 계시를 필요로 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계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간증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모임, 2004년 5월 29일)

## 시험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교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직접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해 보십시오. 그것에 관하여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이 참됨을 알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  
모임, 2004년 5월 28일)



사진 촬영: 미가리터 디아즈 라라,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 그림: 벨 퍼슨, 그가 살아났습니다

### 악을 밟고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주님의 집에 들어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위대하고도 놀라운 의식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커다란 악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을 밟고 일어서십시오. ... 역사상 오늘날보다 더 많은 악이 존재했던 때가 과연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악에 대항하여 굳건히 자리를 지켜 온 이 교회의 청남 청년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모임, 2004년 2월 21일)

### 이 사업의 참 목적

“자매 여러분, 주님의 집에 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하십시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 성전에 한 번도 안 가 보셨거나 오랫동안 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저의 진심어린 사랑의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성전을 아직 방문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듯이 이 사업의 참 목적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모세서 1:39 참조)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와 손자, 손녀, 나아가 증손자, 증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시간이나 죽음도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성약 속에서 그들을 여러분에게 인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영원한 성약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세대에 주어졌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선조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모임, 2002년 3월 20일)

### 성전으로 오십시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으로 오십시오. 성전에 올 수 있도록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기에 합당해지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전은 다른 성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인봉되고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인봉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선조들을 위하여 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도 경이로우며, 이타적인 사업이 주님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오십시오.” (나이지리아 아바 모임, 2005년 8월 6일)



###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힘, 신성함, 현실성, 유용함을 내포하는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신 권능, 즉 고귀한 신권의 권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하고, 왕국의 일을 관장하고, 돕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축복하는 그분의 사업을 행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것도 단순하거나 당연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권은 그분의 신성한 권능입니다. 이 권능에 의해 지구가 창조되었고 그분의 사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량함과 관대함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 신권이라 부르는 이 신성하고 놀라운 권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하고, 우리의 합당성을 손상시키는 일은 결코 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겠습니까?” (유타 주 플레전트 그로브 지구 대회, 2003년 1월 19일)

### 교회에 속함으로써 얻는 축복들

“이 교회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이 ...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후기성도로서 충실하게 생활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그분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사업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자녀를 빛과 진리 안에서 양육하시려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타 주 웨스트밸리시티 스테이크 대회, 2002년 11월 10일)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임무

“우리들은 사랑과 신앙으로 하나가 된 커다란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집단으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하신 여호와이셨으며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던(요한복음 1:3)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된 바 메시아이셨으며 날개에 치료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위대한 치유자이자 부활과 생명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야말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사도행전 4:12 참조)입니다. ...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선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그분은 몸을 낮추시어 높은 왕좌를 버리고 지상에 오시어 타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 땅의 흠길을 걸으시며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교리를 가르치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선물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부활과 영생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런 탄생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분의 탄생도 다른 여느 출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겹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으로 인하여 그분은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영속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만인의 죄를 위한 위대한 속죄였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구속이요 생명이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20)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예배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과 온 인류를 위하여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주이시자 세상의 구속주요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되신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선교사 영적 모임, 2002년 12월 15일)

#### 속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가 없다면 현재의 삶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구속주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줍니다. 우리 구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더 이상 암울한 종말이 아니라 더욱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기 위하여 잠시 거쳐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부활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스테이크 대회 위성 방송, 2005년 2월 12일)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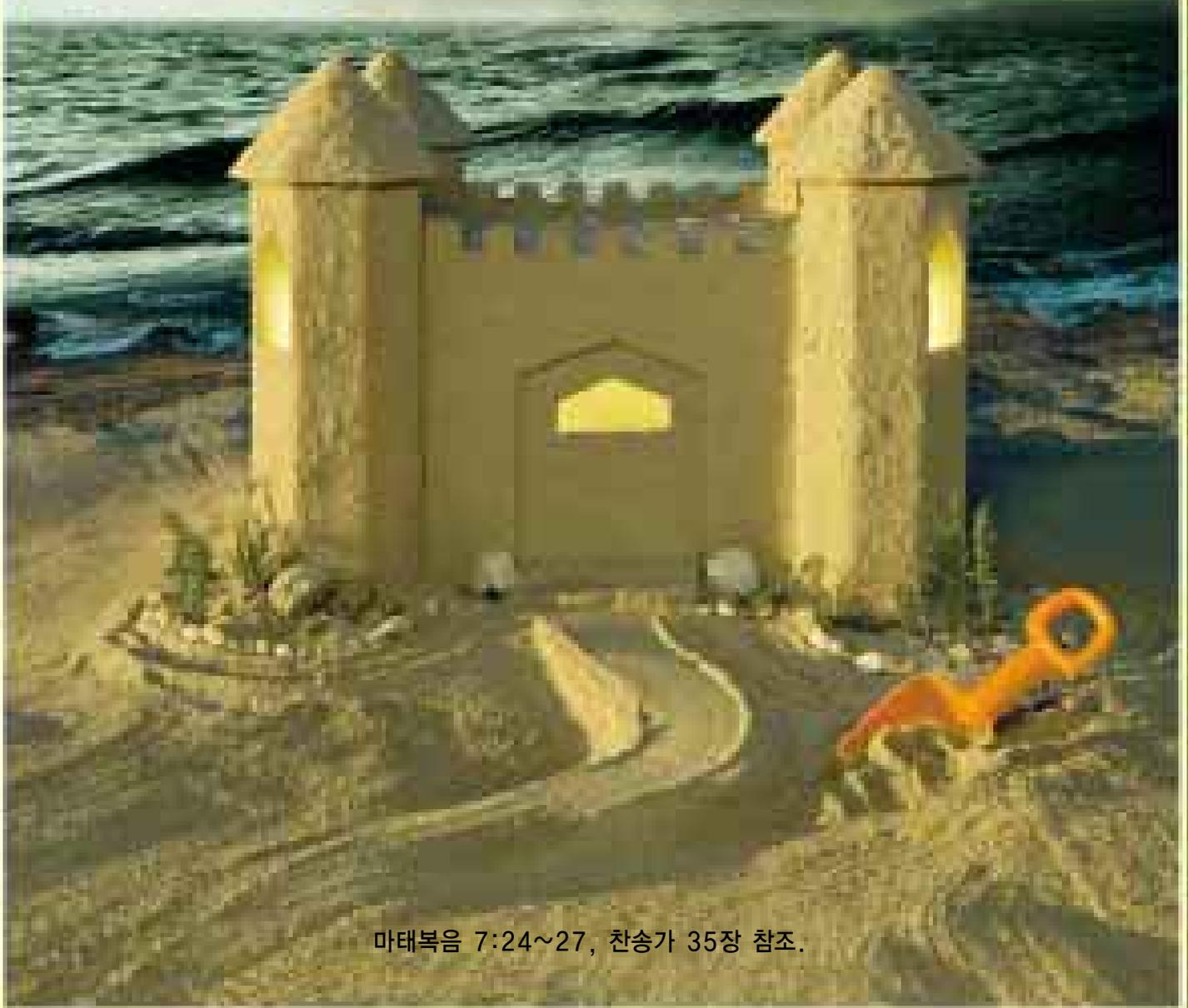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본 글을 소개하며 킵클리 회장의 사진을 보여 준다.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을 소리내어 읽어 줄 것을 부탁한다.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간증한다.

2.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물건이 보이는 곳에 서 줄 것을 부탁한다. 그 사람에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선견자의 역할(모사이아서 8:15~17 참조)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본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는다.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어떻게 넓혀 주는가?

3. 본 글에 소개된 항목들을 나타내는 물건들(경전, 성전이나 구주의 사진 등) 가져온다. 해당 항목을 읽으면서 이러한 가르침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하여 토론한다. 성신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한다.

# 여러분의 기초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마태복음 7:24~27, 찬송가 35장 참조.



**엘리아** 리야는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입어 그의 기도에  
따라 하늘이 비를 내리거나  
멈추었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오늘날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권능을 지닌 선지자의  
부름을 수행한다.



# 평범한 인간, 특별한 부름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1915~1985)  
십이사도 정원회

“총 관리 역원도 평범한 인간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조직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떠올려 왔던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관리 역원들이 수행하는 직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인 듯합니다.

저는 박해와 역경이 심했던 교회 역사의 초창기에 있었던 한 일화를 떠올리고자 합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히버 시 김볼 장로는 교회의 한 미망인 자매님의 집에서 신세를 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빵과 우유를 대접했고 침실을 하나 비워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주무시기 위해 침실로 가셨을 때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옳지, 기회가 왔구나. [총관리 역원도 과연 평범한 인간인지 알아 보고 싶어. 사도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 그래서 그녀는 침실 문이 닫히자 조용히 문 앞에 다가가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김볼 형제님이 침대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이 하나하나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또한 들렸습니다. 자매님은 김볼 형제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히버를

축복하소서. 히버는 너무나도 피곤하합니다.”

... 이러한 의문점은 사람들이 종종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동부에서 오신 어떤 분을 소개 받았습니다. 제 이름을 들으시고는 그분은 제가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실 만한 대상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어떤 대단한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하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도 야고보가 하신 말씀 즉,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으사 삼 년 육 개월의 기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도록 하실 만큼 주님과 교통하는 힘을 가졌다는 점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야고보서 5:17~18 참조) 이는 실로 인간이 창조주와 교통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 세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sup>1</sup>

다음은 우리가 속한 세상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선지자가 정말 있다면 그분은 너무나 숭고하고 지극히 높으셔서 보통 사람과 같을 리가 없어.” 사람들은 사막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침례 요한이나 “한 야인이 우리



맥콩키 장로는 우리가 총관리 역원들의 부름에 대해 갖는 존경심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총관리 역원도 평범한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다.

그림: 윌슨 영, 주님께서 영광이에게 말씀하시다



##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라면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는 그의  
뒤를 이은 브리검 영이나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영감을 받지만  
어디까지나 필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



가운데 왔도다.”라고 말한 예녹과 같은 사람을 기대할지 모릅니다.(모세서 6:38 참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이 지닌 위엄과 영광 그리고 위대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전이되어 그 직분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주제를 더 나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관리 역원들도 인간입니까?”라고 묻는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감독은 인간입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는 “선교사들이 인간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예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생각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결점과 약점 그리고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적이고 육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총관리 역원과 감독 그리고 선교사, 더 나아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회원이 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몰몬경은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모사이아서 3:19 참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잠재력을 심분 발휘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대로 산다면 우리 모두는 세상적이거나 육욕적인 인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필멸의 몸과 그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인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쓴 *Mormon Doctrine*(*몰몬 교리*)이라는 책에서 “총관리 역원”이라는 소제목 아래 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총관리 역원은 여러

일들을 수행하도록 위임 받은 이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와 그들을 감리하는 자들에게 주신 엄격한 규율을 따릅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직책은 높고 고귀하지만 직분을 행하는 개개인은 교회의 여느 형제님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매우 잘 준비되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부름받고 지지 받아 성임된다면 교회의 거의 모든 중요 직책에서 유능하게 봉사하실 수 있는 형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sup>2</sup>

그 책에서 “선지자”라는 제목 아래 저는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은 위대한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 역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필멸의 인간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그들 자신의 견해와 편견을 지니며 영감 없이 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미시간에서 온 한 형제 자매와 만나는 동안, 그들이 ‘선지자는 항상 선지자’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때,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만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했습니다.”<sup>3</sup>

따라서 선지자의 견해나 생각이라도 주님의 영에 의해 감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감 어린 경전이나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선지자 중 한 분이었지만 그분도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다소 가졌었고, 그 중 일부를 그의 서신에 썼습니다. 현명하고 신중했던 바울은 그의 견해가 구별되도록 언급했습니다. 그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한편 주님의 생각은 이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시각과 개인적인 견해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그들이

영의 감화에 따라 행할 때에는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 필멸의 존재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큰 지혜와 뛰어난 판단력으로 필멸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견해를 가질지 모르지만 영에 의해 주어지지 않았고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면 교회의 다른 회원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이 영감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괜히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셉 스미스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하나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저 조셉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십이사도이든 교회의 가장 낮은 자이든 가장 최근에 개종한 회원이든 하나님께서 못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sup>4</sup>

이것은 완벽한 말씀이며 바울이 가르친 것과 같은 교리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다 ... 예언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했고 또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31, 39) 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교회의 모든 조직들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이나, 선교사, 감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와 선지자처럼 되어야 합니다. ■

1973년 1월호 뉴이라에서 발췌

주

1. *History of the Church*, 2권 302쪽.
2. *Mormon Doctrine*, 2판(1966) 309쪽.
3. *Mormon Doctrine*, 608쪽.
4. *History of the Church*, 3권 380쪽 참조.



**교** 회의 모든 회원들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이나, 선교사, 감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 함께 끝까지

## 올림피아드 출전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루시아와 마리아노 팔레모  
남매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를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위: 루시아와 팀  
동료가 2004 아테네  
올림픽 이전에 있었던 한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 아담 시 올슨 교회잡지

**팀** 동료와 함께 노를 저으며  
1,000미터 지점을 1등으로  
통과하는 순간 마리아노 팔레모는 온  
몸에 흐르는 전율을 느꼈다. 2003년 아르헨티나  
조정 남성2인조 챔피언십 경기에서 우승하여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  
그의 꿈이 절반쯤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훌륭하게 리듬을 타고 있었다. -  
완벽한 조화 속에서 힘차게 노를 저어 물살을  
갈랐고 경기의 선두를 달렸다.

그러나 몇 백 미터 후, 그의 동료가 지쳐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마리아노의 흥분은  
사라졌다.

마리아노는 2등으로 쫓아오는 보트가 별로  
멀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들이 초반에 확보한  
거리가 결승점에 첫 번째로 들어가기에 충분할  
것인가?

## “우리는 확실히 단합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노의 쌍둥이 누나인 루시아도 잠시 후  
열릴 여자 2인조 경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동생의 경기장에 와서 경주를 보고 있었다.  
루시아는 마리아노 팀이 초반에 훌륭하게  
앞서나가서 정말 기뻐했다. 그러나 속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팔레모 가의 쌍둥이들은 언제나 서로  
가까웠다. 같은 나이에다 여러 활동에 같이  
참여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상호 향상 모임, 세미나리, 학교,”  
루시아가 열거한다. “이제 둘 다 자라서  
전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린 여전히 함께  
훈련을 해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리토랄  
스테이크 파체오 와드의 회원인 이 쌍둥이  
남매는 관심사도 비슷하다. 둘 다 손을  
사용하는 일을 좋아한다 - 루시아는 공예와  
바느질, 마리아노는 자동차 정비를 좋아한다.

루시아가 덧붙인다. “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린 좋은 팀이죠.” 마리아노가 웃으며  
말한다. “전 누나랑 요리하는 것이 좋아요. 잘  
하진 못하지만 재미있어요.”

루시아가 “우리는 뭐든 얘기해요” 라고 할 만큼  
둘 사이가 그렇게 좋은 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쌍둥이인 것을 모른다고 마리아노는 말한다.  
이 둘은 서로 닮지 않았다.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어요.” 쌍둥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 루시아는 장난스럽게 말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든 경기에서든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우린 한 팀이에요. 멋진 일이죠.”

### 인생은 팀 경기이다

마리아노는 동료의 속도가 떨어지면 자신이 아무리 힘이  
넘쳐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리아노가 자기 노를  
동료보다 더 빠르고 세게 젓는다면, 두 사람의 균형이 깨져서  
보트가 코스를 이탈할 것이다.

그는 동료의 속도에 맞추었고, 경쟁자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쌍둥이 남매로서 마리아노와 루시아는 비슷한 점이 많다. 그  
중 하나는 열정적으로 훈련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팀 경기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우승할 수가 없다. 남매는 팀 동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마리아노가 말한다. “보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이는가는  
일치 단결에 달려있습니다.” “팀이 둘이든, 넷이든, 아니면  
여덟이든, 우린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해요.”

루시아가 말한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노가 끼어든다.

“보트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죠.” 루시아가 말을 맺는다.

두 사람은 단지 조정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쌍둥이 남매로서,  
그리고 교회의 회원으로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팀이 같은 목표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달성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리아노가 말한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되죠.”

남매는 함께 노력하는 것이 조정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보트에 함께 계서서(엘마서 7:11~12 참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결승선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신다. 속죄는 화해하여 조화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엘마서 22:18), 세상적인 욕심을  
 거절하며 주님의 뜻을 행해야만 한다.(모사이아서  
 3:19)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구주께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히브리서 12:1)를 아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다.

우리가 자기 방법대로 하길 원하여 그분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조화는 깨지고  
 전진하는 속도가 떨어지며 심지어 경주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 함께 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스포츠에서도 인생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 믿으며  
 스스로 자신의 속도를 정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일생 동안 홀로  
 노를 젓는다.(마가복음 10:27 참조)

조정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는 팀은 개인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루시아가 설명한다.

보통 2,000미터 경주에서 남성 1인 경기의  
 최고 기록은 7분 미만이다.(세계기록 6:35.40)  
 그 선수가 8인 팀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료들이  
 자신보다 실력이 뒤진다 할지라도 자기 기록을  
 앞설 수 있다. 8인 팀의 세계기록은  
 5:19.85이다.

한 명의 조정 선수가 결속된 팀을 이기기 힘든  
 것처럼, 우리는 구주 없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승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에 더하여 협력이  
 필요한 것처럼, 팔레모  
 남매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주를 신뢰하고 부지런히  
 복음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리라”  
 (교리와 성약 38:27)라고 말씀하셨다.

인생이 단독 경기가 아니라 팀 경기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 각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 누구를 따를 것인가?

2등으로 추격하던 팀이 마리아노의 보트  
 옆까지 오자 그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싶은  
 유혹을 누르는 데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해야  
 했다. 결승선이 코앞에 있었다. 하지만  
 마리아노는 자신의 속도로 노를 저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속력을 더 떨어뜨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코스를 벗어나서  
 경기를 끝마치지도 못할 것이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내가 아닌 타인의  
 속도에 맞추겠다는 선택은 우리의 지상생활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이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갈 수 없다.(로마서  
 3:23 참조)

다행히 구주께서는 속죄를 통해 친히 우리의

###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마리아노와 그의 동료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그들은 추월 당했고 2등으로 밀려났다.

마리아노가 경기를 마치고 보트를 끌어올릴 때 루시아도 보트랩프에 있었다. 루시아는 곧 열릴 자기의 경기에 집중해야 했지만, 동생이 실망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울음을 터뜨렸다.

“난 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알아요.” 그녀가 말한다. “그렇게 실망한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남매는 마리아노의 실망을 함께 슬퍼했다. 마침내, 루시아가 자신의 경기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걱정한 코치가 둘을 떼어 놓았다. 하지만 경기시간이 되자 루시아와 그녀의 팀 동료는 우승을 차지했고, 남미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여 2004년 올림픽 출전권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이 마리아노의 경기 결과를 함께

슬퍼했던 것처럼 루시아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다.

“누나가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을 때 정말 신이 났어요.” 마리아노가 말한다. “누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는 우승할 수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루시아와 그녀의 동료는 17위를 기록했다. 마리아노의 경기 결과처럼, 루시아의 경기도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높다. 그들의 단기 목표는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이며 장기 목표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두 목표 모두 희생, 그리고 기꺼이 타인과 함께 일하는 마음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각 팀이 얼마나 단합되었는가에 상관없이, 세상은 오직 한 명의 승자에게만 상을 주는 반면(고린도전서 9:24 참조),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니파이의 “비록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중 많은 자들이 그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한다]”(니파이후서 33:12)고 했는데,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의 세상적인 열망을 희생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화합하여”(니파이후서 33:9)야 한다.

팔레모 남매는 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과 희생이 가장 중요한 경기를 치르는 데 충분하기를 소망한다. ■





#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경전에서 영의 권능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라고 거듭 권고를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50:14 참조) 저는 교회의 부모와 교사들 대부분이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원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원리는 사실 훨씬 더 큰 영적인 가르침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주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고 배웁니다.(교리와 성약 88:118 참조) 영으로 전파하는 것과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꾸준히 그리고 동시에 이해하여 적용해야 하는 한 쌍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으로 배우는 학생에 대해서보다 영으로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와 절차는 모두 영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게 될 미래가 더욱 혼란하고 거친 세상이 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으로 영적인 지식을 얻고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영적인 힘과 인도, 보호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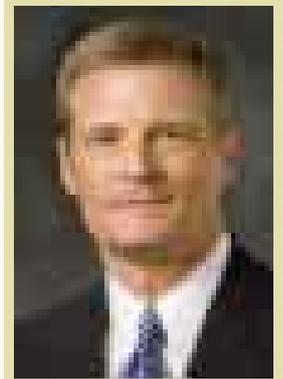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메시지를]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니파이후서 33:1) 영의 권능은 메시지를 마음에 전할 뿐, 반드시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설명하고, 시연하고, 설득하고, 간증할 수 있으며, 위대한 영의 권능으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메시지의 내용과 성신의 증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허용할 경우에만 마음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마음속의 문을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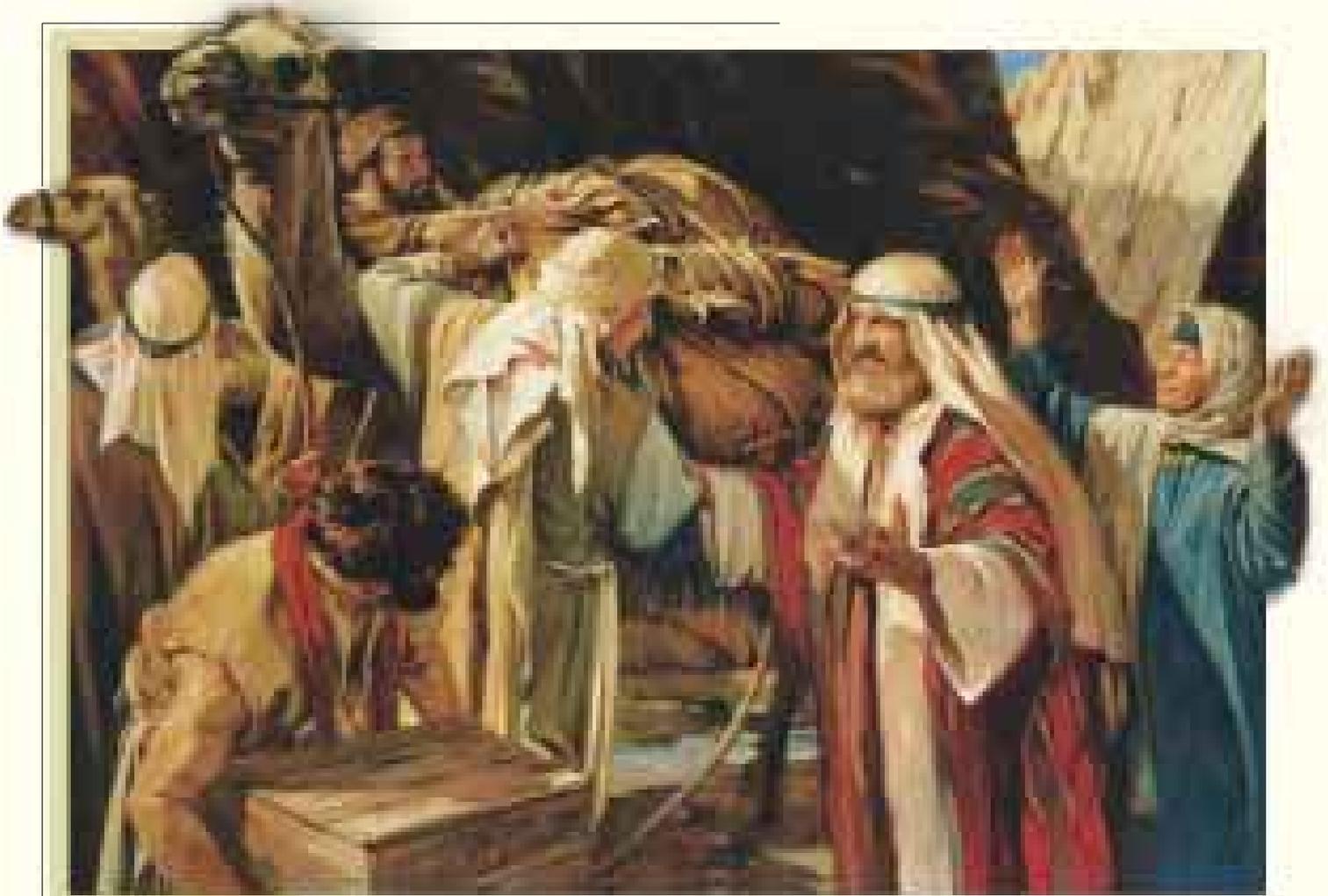
## 행동의 원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사도 바울은 신앙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했습니다.(히브리서 11:1 참조) 엘마는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있을 경우,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엘마서 32:21 참조) 또한 *Lectures on Faith*(신앙 강좌)에서는 신앙이란 “계시된 종교의 첫째 원리이자 모든 의의 기초”이고 “모든 지적 존재의 행동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sup>1</sup>

이 가르침들은 다음과 같이 신앙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강조합니다. (1) 참된 것을 바라는 확신으로서의 신앙, (2)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살게 될 미래가 더욱 혼란하고 거친 세상이 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 쇠판을 얻기  
 위해  
**늦**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니파이는 미래를  
 향한 영적인 확신에  
 의지하여 “[그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증거로서의 신앙, 그리고 (3) 모든 지적 존재의  
 행동 원리로서의 신앙입니다. 저는 동시에 미래를  
 맞이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며, 현재 행동을 취하는  
 관점에서 구주를 믿는 신앙의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신앙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며, 구주를  
 섬기는 데 있어 불확실하고 종종 험겨운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줍니다.(니파이후서  
 31:20)

예를 들면 늦쇠판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니파이는 이러한 형태의 미래를 향한  
 영적인 확신에 의지하여 “[그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니파이전서 4:6~7)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과 승영을 바라는 소망과 불가분의  
 관계인 동시에 그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통해 빛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면서 빛이  
 길을 밝혀 주리라는 기대와 신뢰로 어둠 속에서 몇  
 발자국을 더 내딛게 됩니다.<sup>2</sup> 확신과 소망이  
 함께하면 현재의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의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참됨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확인합니다. 확신과 소망을 갖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던 우리는 빛이 실제로 움직여 필요한 곳을  
 밝혀줄 때 증거와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 얻은 증거(이더서 12:6 참조)는  
 우리의 확신을 키우고 강화시킵니다.

확신, 행동, 증거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나선은 마치  
 코일처럼 위로 소용돌이쳐 올라가며 점점  
 확장되어 넓어집니다. 신앙의 이 세 가지 요소, 즉  
 확신, 행동, 증거는 서로 떨어진 개체가 아니며,  
 오히려 상호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원을 그리며  
 위로 올라갑니다. 이 지속적인 과정의 동력이 되는

신앙은 발전하고 진화하며 변화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는 순간,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져 증거를 낳으며 이를 통해 확신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의 확신은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더해 가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확신, 행동, 증거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언약궤를 운반했던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여호수아 3:7~17 참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른 후 물이 갈라져서 그 강을 건너 마른 땅에 가리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하면서 강둑에 섰을 때는 물이 갈라지지 않았고, 물이 갈라지기 전에 그들의 발바닥은 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물이 갈라지기 전에 물 속으로 걸어갔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신앙, 즉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자 물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에 도달하여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신으로서의 신앙은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에 대한 증거를 낳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항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 원리로서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경전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야고보서 2:26)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라”(앨마 32:27)

행동의 원리로서 신앙은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의 핵심이 됩니다.

### 신앙으로 배움: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않음

모든 지적 존재의 행동 원리로서 신앙은 복음을 배우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배움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크게 구분하면 행하는 것과 행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니파이후서 2:13~14 참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선택의지의 은사, 즉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축복받았습니다. 선택의지를 부여 받은 우리는 단순히 행함을 받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지식을 구하고 적용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두 가지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구주께서는 속죄를 통해 도덕적 선택의지를 보존하셨으며 우리가 신앙으로 행동하고 배우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대항하는 루시퍼의 반란은 인간의 선택의지를 멸하려 한 것이었고 그의 의도는 우리가 오직 배우는 자로서 행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 3:9)라고 하신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아버지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아셨지만 그럼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명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배우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단순히 행함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가 불순종하는 자녀를 가르치려 할 때 하는 일방적인 훈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배우는 자인 아담이 행위의 주체로서 행하며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부친 리하이와 생명 나무의 시현에서 본 것들에 관해 니파이가 어떻게 알고 싶어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주님의 영이 니파이에게 “보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니파이전서 11:2)라고 질문함으로써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영은 니파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질문을 했을까요? 성신은 니파이가 배우는 과정에서 행위의 대상만이 아니라 주체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니파이전서 11~14장에서 영이 니파이에게 배우는 과정의 요소로서 질문하고 “보라”고 권유한 것에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몇 가지 예에서 우리는 배우는 자로서, 단순히 말씀을 듣고 행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하고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는 행위를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르침과 행함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은 신앙으로 행하고 배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가르침과 행함 받기를 기다립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도록 격려하고 돕습니까? 우리 모두는 열심히 질문하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제3니파이 14:7 참조)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배우는 사람은 성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하여 성신의 가르침, 간증하는 권능, 확신을 주는 증거를 구합니다. 신앙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 정신적, 물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동기가 된 행동을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성신으로부터 기꺼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행하기 위해 도덕적인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유일한 참된 교사인 주님의 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구도자가 신앙으로 배우도록 돕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문경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등과 같은 영적인 결심을 하고 지키려면, 구도자는 신앙을 행사하고 스스로 행해야 합니다. 선교사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구도자가 신앙으로 행하고 배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권고하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도자에게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도자가 신앙을 통해 행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성신은 확신이라는 증거를 가져다줍니다. 선교사들은 당연히 영의 권능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구도자들이 신앙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선교사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배움은 단순한 인지적 이해력이나 정보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배움의 종류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모사이야서 3:19 참조), 마음을 변화시키고(모사이야서 5:2 참조), 주께로 돌이키고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배움입니다.(엘마서 23:6 참조)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교성 64:34 참조) 모두를 요구합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그리고 마음 속으로 전해 주는 결과입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교사가 강연과 시범, 혹은 경험에 의한 실습을 통해 학생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지식을 얻기 위해 신앙을 행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조셉 스미스는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조셉 스미스가 신약의 야고보서에 있는 기도와 신앙에 관한 구절을 읽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5~6 참조) 조셉은 이 구절을 통해 집 근처 숲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영적인 지식을 구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조셉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꼈던, 그리고 숲에 들어가 했던 질문들을 잘 살펴 보십시오. 분명히 조셉은 “믿음으로 구하고”(야고보서 1:6) 행할 준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나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내가 주께 묻기 위해 갔던 목적은 모든 교파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아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즉시 내 위에 빛 가운데 계시는 두 분께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으며 ... 내가 어디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10, 18)

조셉의 질문은 자신이 알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조셉의 첫 번째 질문은 행동과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어느 교회가 옳은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자신이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조셉은 신앙으로 배우기 위해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행하려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으로 배우고 영적인 진리를 적용해야 할 책임은 우리들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세상에서 더욱 커질

심각하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배우는 내용, 방법, 시기는 교사와 발표 방법, 혹은 특정 주제나 공과 형태의 도움을 받지만 그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필멸의 지상 생활의 큰 도전 중 하나는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배움의 절차와 결과를 가장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가르침을 원하던 십이사도들의 요청에 따라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리와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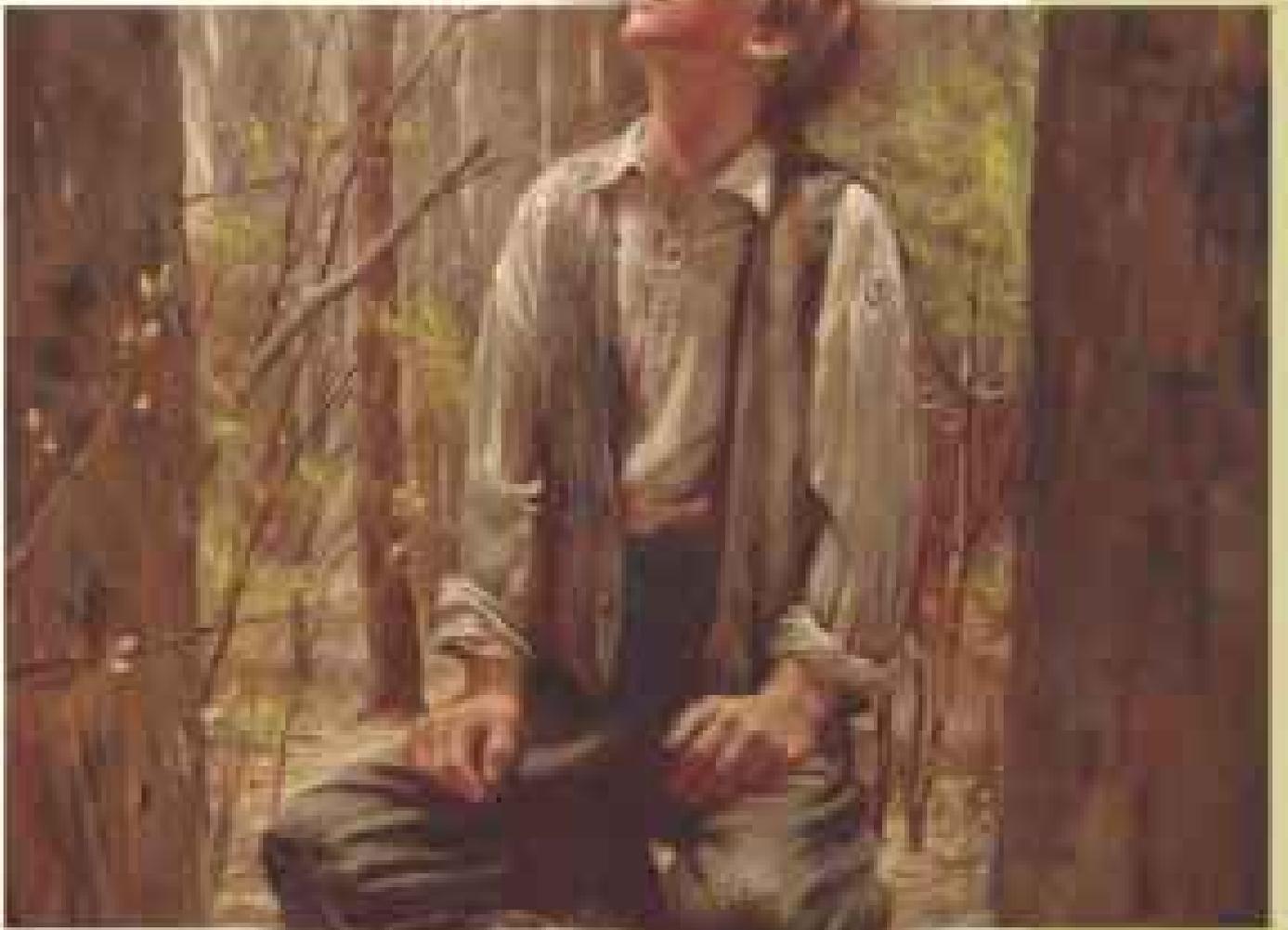
하나님께 나아가 신성한 가르침을 얻는 것입니다.”<sup>3</sup>

또 다른 상황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읽는 것만으로는 현재 우리 상태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포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sup>4</sup>

#### 교사들에게 주는 의미

신앙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진리들은

**조** 셉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꼈던, 그리고 숲에 들어가 물었던 질문들을 잘 살펴 보십시오. 명백히 조셉은 “믿음으로 구하고” 행할 준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44 믿음의 소망, 윌터 더빈,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보** 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간증은  
간증을 할 때 연게 됩니다!  
... 여러분이 가진 것을 줄  
때, 그 자리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부모와 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의미 1: 성신은 아버지로부터 온 교사이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자 모든 진리에  
대한 교사이며 증인입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1862~1933)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 성역을 베푸는 성신의 직분은 경전에  
설명되어 있다. 성신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교사이다. 성신은 그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혼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sup>5</sup>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신은 올바른  
초대를 통해 배우는 자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교사라는 점입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 즉  
보혜사를 통해 복음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성신을 통해서만 신앙으로 배우는  
일이 가능합니다.(교리와 성약 50:14 참조)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아주 먼 곳까지 광 신호를  
보내는 광섬유 케이블의 길고 가느다란 유리

섬유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안의 유리  
섬유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듯, 우리도 주님의  
영이 작용하는 합당한 통로가 되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데  
있어, 우리는 도선이고 통로이지 빛이 아닌란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태복음 10:20)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사로서 여러분이나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전달 방법, 또는 개인적 행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목받게 한다면, 그것은  
일부 성직자들의 영향으로 성신의 효과적인  
가르침이 저해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파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교성 50:17~18)

**의미 2: 우리는 신앙으로 배우는 것을 격려하고 도울 때 가장 효과적인 교사가 된다.**

사람에게 물고기 하나를 주는 것은 한 끼의 식사를 주는 것이라는 속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평생을 먹여 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복음 교사로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물고기를 나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목적은 배우는 자들에게 정확한 원리에 따라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도울 때, 즉 행위로써 배우도록 도울 때, 가장 잘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주니어스 에프 웰즈 형제가 1875년 교회 청남을 조직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브리검 영 회장(1801~1877년)이 그에게 준 권고에서 이 의미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주목하십시오.

“모임에서 출석부 맨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회원들에게 간증하도록 부탁하고 다음 모임에서는 나머지 회원들도 모두 일어나 소리 내어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간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많은 진리들을 말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간증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일어서서 간증하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얻었습니다.”<sup>6</sup>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오늘날 비슷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오, 제가 여러분께 이 한 가지 원리를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증은 간증을 할 때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철학자들이 ‘신앙의 도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빛의 가장자리에 서서 어둠 속으로 들어선 순간 그 길이 한두 발자국 앞까지 밝혀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영혼은’ 참으로 ‘여호와와 등불’입니다.(잠언 20:27)”

“여러분이 읽은 것이나 다른 사람의 말씀에서 증거를 얻는 것은 필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영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이 간증한 것이 참되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또 다른 경험입니다. 간증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줄 때, 그 자리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집니다.”<sup>7</sup>

저는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사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쉬운 대답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가리켜 주고 스스로 받을 내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늘 이 방법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이 준 답은 기억한다 해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찾아낸 대답은 평생 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남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습득함으로써 얻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으로 받은 영적인 이해는 우리 마음에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며 남에게 그냥 건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면 근면과 신앙으로 배우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알고만 있던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도록 바뀌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남의 영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에서 자신의 영적인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배움)을 구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88:118)

**의미 3: 우리의 신앙은 타인이 신앙으로 배우도록 도울 때 강화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성신(요한복음 14:26 참조)은 우리가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열심히 돕고자 합니다. 흥미롭게도 배우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신성한 도움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지명을 받고 가르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한 말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로마서 2:21)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하늘의 은혜와 가르침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교리와 성약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또 내가 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는 너희가 이론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복음의 법에 있어서, 너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교리와 성약 88:77~78)

이 성구에 설명되어 있는 축복들은 특별히 교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 교사인 너희가 가르침을 받도록 …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똑같은 원리가 교리와 성약 같은 편 12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2)

경건하고 질서 정연히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들을 때 이들은 모두 교화됩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행사하면 주님의 영으로부터 가르침과 힘을 받게 됩니다.

### 신앙으로 배움을 구함: 최근의 예

2005년 8월에 힝클리 회장님은 우리 모두가 2005년 말까지 물문경을 읽으라는 권고를 하셨고 우리는 이를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물문경을 읽도록 권유하시면서 이 단순한 읽기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우리의 삶과 가정에 “더욱 충만한 주님의 영이 함께 할 것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생길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sup>8</sup>

이 영감에 찬 권고가 어떻게 신앙으로 배우는 것의 훌륭한

예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여러분과 저는 읽으라는 명령이나 강요, 혹은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행위자로서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정확한 원리에 따라 행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영감 받은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단순히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궁극적으로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것인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둘째, 읽고 행하라는 권고를 통해 힝클리 회장님은 우리 각자에게 신앙으로 배우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교회 회원들에게 새로운 학습 자료가 배부된 것도 아니었고, 추가적인 공과, 수업, 혹은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제작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물문경이 있었습니다. 제일회장단이 주는 권고를 받아들이고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이르는 길이 더 넓게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유일하고 참된 교사인 성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는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혼란스럽고 불안한 곳이 되어감에 따라 이 책임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개발, 그리고 후기 교회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성신으로 충만하여(제3니파이 12:6)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기를 간구합니다. ■

2006년 2월 3일 교회 교육기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위성방송 중에서 발췌

### 주

1. *Lectures on Faith*(1985년), 1쪽.
2. “주님의 등불,”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83년 10월호, 27쪽.
3. *History of the Church*, 4:425.
4. *History of the Church*, 6:50.
5. *신앙개조*(1924), 149쪽.
6. Junius F. Wells, “Historic Sketch of the YMMIA,” *Improvement Era*, 1925년 6월, 715쪽.
7. “주님의 등불,”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83년 10월호, 35쪽.
8.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야호나*, 2005년 8월, 2쪽.



##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필요한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12:20, 27:** “이제 지체는  
많은나 몸은 하나라 ...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38:27 참조) 이러한 훌륭한 조화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증명해 줍니다.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서 그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일 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결속력과 힘을 유지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 아래 어떤  
힘도 이 위대한 왕국의 진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5쪽)

**매리온 지 롬니 회장(1897~1988),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온전히 복음대로 살  
다른 사람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될  
것이며 ...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  
원리의 생활화,” 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142쪽)

###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손 안의 더 나은 도구가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때때로 부조화나  
대립을 느낍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 매일, 매주 노력할 때,  
우리의 영은 우위를 차지하며 내부의  
갈등은 잦아들고, 유혹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변형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 (로마서  
6:13 참조)가 될 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사이에 더 큰 조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1~72쪽)

**캐서린 에이치 휴즈,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 (교리와 성약 64:34) ...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열어 놓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네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지  
말고 내 뜻을 구하며 내  
계명을 지키라  
(힐라맨서 10:4)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베푼 다음,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작은  
일에서,”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09쪽)

#### 닐 에이 맥스웰

**장로(1926~2004),**

**십이사도 정원회:** “영적인 순종은  
안정된 마음과 정신으로 주님께  
속하며 그분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정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은  
영적인 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도구가 스스로  
지휘를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더 나은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순종함,”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77쪽) ■

조각가의 도구 사진: 크레이그 데이먼드, 어린이 사진: 매트 라이어, 모델의 표지를 위해: BOBBER © ARTBEATS

# 영원한 결혼으로의 개심

나는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해 데이트는 실패를 거듭했다.

## 제임스 웰치

여러 해 전 나는 대체로 복음에 대한 간증은 있지만, 일부 원리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개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비록 십일조나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영원한 결혼에 대한 원리, 즉 나 자신의 영원한 결혼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 실패의 연속

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인근에 사는 여성들과 데이트를 했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나는 지칠 때까지 계속 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한 여성들의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내는 데 전문가가 되었다. 나는 늘 데이트하던 여성과 헤어지는 것을 정당화했으며 대개 일이 년이 지나서야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말을 하곤 했다. 횡수를 거듭하면서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에 나는 결국 구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했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도 가고, 주님의 인도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도 했으며 와드 부름에도 충실하게 봉사했다. 가족들이

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감독님과 정기적으로 상담도 했다. 심지어는 한동안 뛰어난 후기 성도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으며,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내 문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많은 의구심과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는 결혼이란 기적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감독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매년 새로운 감독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소망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염려해 주었으며 교회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내가 마흔다섯 살이 되었을 때, 우리 와드의 감독님이 바뀌었다. 새로운 감독님의 이름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몹시 낙담했다. 새로 부름



받은 감독님은 나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리석게도 나는 다시 새로운 감독님이 부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마음먹었다.

### 직설적인 대화

새로운 감독님이 부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일요일, 신권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감독님이 나에게 성전 추천서 접견을 위해 즉시 감독실로 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거기서 나는 거의 외우고 있다시피 한 나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잘되고 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내가 데이트한 모든 여성은 참을 수 없는 결함들이 있었다. 어쩌면 나는 이생에서는 결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다.

감독님은 나의 불평을 일축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결혼을 하고 싶은 겁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결혼하고 싶다고 대답해야 했으나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물었다. “형제님, 집으로 가서서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지 결정을 내리십시오. 결혼하지

않기로 한다면, 저는 형제님에 대해 애석해 하겠지만, 데이트를 중단하고 그것에 대해 더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결혼하고 싶다면,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그 순간 나는 그의 권고가 도움이 되리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다.

나는 생각에 잠긴 채 감독실을 나섰다. 교회 모임 후 집으로 가서 잠시 진지하게 생각한 후, 결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결혼하고 싶었으며 감독님의 권고가 어떤 것이든 기꺼이 그것을 따르기로 했다.

이 결정은 결혼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전환점이 되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진지한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결혼이 최우선 순위라고 자부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편할 때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였고 대개는 공연 음악가와 대학 교수로서의 직업에 몰두하면서, 다른 것들을 우선시했다.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같이 똑같은 열의를 갖고 결혼 목표를 성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 는 이 원리에  
관해 마음에  
큰 변화를  
겪었으며 그것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1997년 5월 22일에  
캘리포니아 오글랜드  
성전에서 지금의 아내인  
디앤과 결혼했다.



**제임스와 디앤 웰치, 아들 제임슨과 니콜라스와 함께. 웰치 형제는 자신의 가족과 결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년 전에는, 이러한 만족을 얻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독님의 가르침**

다시 감독님과 상담하러 갔을 때, 그는 이전의 어느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나의 변명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문제를 찾아봅시다. 형제님의 경우에서 관계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 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으나 그의 솔직함은 고무적이었다.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처해 있던 수렁에서 빠져 나오는 데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했으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감독님이 내게 처음 준 권고는 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단순히 피상적인 요소들(나는 내 배우자가 금발에다 노래와 요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신앙, 성실, 선의 등과 같은 영속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동반자를 새롭게 찾아보기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나의 임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녀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감독님은 또한 내가 결혼을 추구하는 일에서 나의 결함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 결함들이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나와 데이트를 한 여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잘못된 생각과 비현실적인 기대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내가 데이트를 하면서 따라야 할 새로운 몇 가지 규칙을 정해주었다.

우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다. 나는 내 생활 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었고, 피상적으로는 결혼을 소망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나의 일상 생활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내 생활 방식을 일부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5년간 내 방식대로 살아오면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했다. 물론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내 나이가 마흔 다섯이니 데이트를 할 시간이 무한정 많지 않다는 것도 이해해야 했다.

둘째,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오락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결혼을 준비하는 동반자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인격에 대해 잘 알게 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의 영에 대해 잘 알게 된다는 것이었다.

감독님은 또한 나에게 데이트를 몇 번만 하게 되면 그 여성이 내가 찾고자 하는 성품을 지녔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만일 그러한 성품들이 없을 경우,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하라는 것이었다. 효과 없는 오랜 기간의 데이트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 감독님은 놀라운 최후 통첩을 전했다. 나는 결혼을 하거나 거절을 당할 때까지 진지한 데이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했다.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데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이 거부하지 않는 한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먼저 관계를 끝내는 일을 반복했었다. 나답지 않은 대담한 결심으로, 나는 그러한 조건에 동의했다.

### 내가 배운 것

나는 몇 가지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위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숙한 대화를 하기 전이 아니라 후에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일반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은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할 때에만 사귀려 한다. 또한 일부 독신들은 진지한 토론과 어려운 문제보다는 피상적인 주제들을 좋아하면서, 일단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면 실제 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하며 진지한 토론과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려 한다. 실제로, 사실은 그와 정반대다. 만약 처음부터 정직하게 대화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답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경우, 신뢰가 싹튼다. 이 신뢰는 대개 의심, 확신의 부족, 그리고 불안한 관계의 원인이 되는 두려움을 없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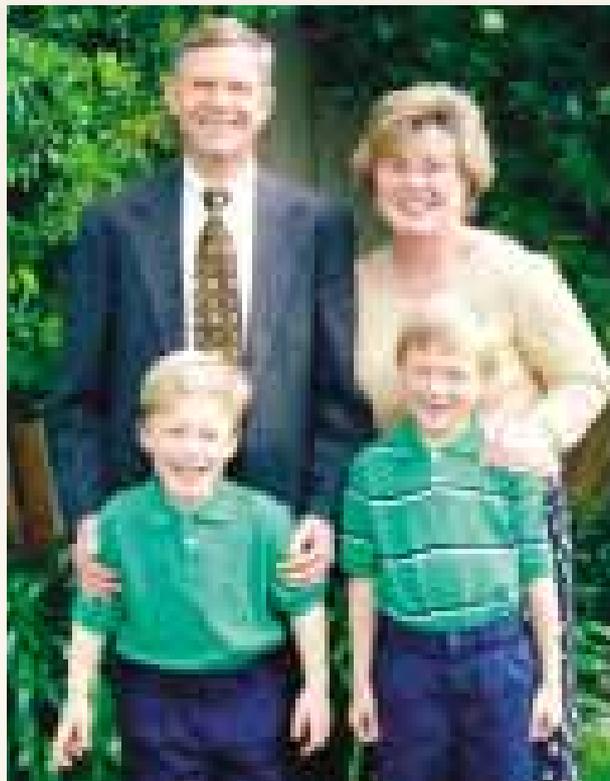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사랑은 원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나는 자신을 낮추고 어느 여성도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만한 태도를 없애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 나의 진정한 개심

바로 다음에 만난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몇몇 여성과 아주 짧게 데이트를 했으며 좀

더 오래 데이트를 했던 경우에는 결국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비록 즉각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나는 신앙을 행사하며 감독님이 준 지시를 따랐다.

이렇게 나의 시각과 태도를 바꾸고 난 다음 해에, 나는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낸 여성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실제로



전에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면, 즉 영속적인 성품(또한 다른 많은 성품들) 때문에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예비 동반자로서 그녀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관대하게 내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줬으며, 현재는 나의 아내이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나는 그녀를 깊이 사랑한다. 10년 전에는, 이러한 만족을 얻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개심을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그것은 참된 개심, 즉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이었다.) 감독님이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이미 내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변화가 왔다고 생각한다. 나의 감독님은 엉망이던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으며, 오랫동안 내가 말해 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개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나는 이 원리에 관해 마음에 큰 변화를 겪었으며 그것은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되돌아 보면, 그날 감독실에서 그의 권고를 따르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나의 개심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참으로 나는 개심을 하게 되었다. ■

# 시험의 밤

리하이 엘 크루즈

**내**가 초등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모든 학생이 졸업 여행으로 필리핀 네그로스 오시덴탈에 야영을 하러 갔다. 우리는 야영장에 텐트를 치고 구아바와 망고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내가 잘 있는지 보러 오셨다. 그분들은 내게 조심하라고 하시고는 다시 가셨다.

학급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나와 내 친구들에게 그의 사촌 형과 함께 차를 타자고 권유했다. 그의 사촌 형은 우리를 태우고 돌아다녔으며 우리는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반 친구들이 맥주와 담배를 갖고 온 것이다. 우리는 야영장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차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에게도 권했으나 나는 거절했다.

나는 흡연이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그것은 나의 믿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에 대해 말했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율법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흡연, 음주, 차, 커피, 마약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 우리의 텐트로 돌아와 잠을 잤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반원들과 함께 술, 담배를 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에 대해 가르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뻐다. 나는 성신이 그곳에 임하여 나를 인도하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어서 기뻐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부모님이나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순종심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지혜의 말씀과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적당한 나이가 되면, 나는 선교사로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칠 것이다. ■



# 구주를 인식함

제이드 스타르츠버그

**내**가 우리 중학교 구내 식당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주제가 나왔다. 나의 친구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으나, 여러 번 교회에 참석한 덕에 예언된 사건들에 관해서 들은 바가 있었다. 그들은 또한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과 구주를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한 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들의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다.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보더니 심각하게 말했다. “제이드, 곧 재림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없을 거야. 네가 나한테 그분을 가리켜줄 수 있겠니?”

물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내 친구들은 아마도 그 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았을 테지만, 나는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을 근거로 하여 내 친구들은 내가 구주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들은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나는 과연 “너희는 너희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보았느냐?” (엘마서 5:14)고 한 엘마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 친구들이 무심코 던진 그 질문은 여러 번 구주와 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나의

개인적인 기도와 경전 공부는 내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할 만큼 의미 있는 것인가? 그렇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그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그분의 형상을 내 얼굴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알아보실 것이다.(엘마서 5:19 참조) ■



# 벌레가

## 입안으로 날아든다면

영적인 벌레는 더 귀찮을 수 있다. 그 벌레들을 즉시 빨아 버리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아론 엘 웨스트

**나**는 그 토요일 아침 외출했을 때, 자신에게 “오늘은 벌레가 입으로 날아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길을 걷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벌레 한 마리가 입으로 날아든 것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 벌레가 날아오는 것도 보지 못했다.

여러분은 그 벌레가 내 이 사이에 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 벌레를 입안에 빨아들여 맛을 음미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도 않았다. 나는 삼키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도 내지 않았다. 나는 즉시

그 벌레를 뱉어버리고 길을 따라 뛰면서 계속 침을 뱉었다.

여러분은 “벌레”가 입안으로 날아든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부적절한 사진을 보거나 노래 또는 말이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악한 영향력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악한 영향력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벌레들은 치명적이다. 즉, 작은 벌레가 우리 몸에 끼치는 해보다 우리 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은 영적인 벌레가 입안으로 날아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벌레가 내 입안으로 날아들었을 때 내가 했던 것과 똑 같이 해야 한다. 그것을 뱉어버려야 한다! 잡지도 머뭇거리지 말라! 그곳을 떠나라. 꼭 그래야 한다면 뛰어서라도 도망쳐야 한다. 텔레비전을 끄고 라디오를 끄도록 한다. 컴퓨터를 끈다. 그러한 책이나 잡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이 “신앙의 정신력”이라고 한 것을 실천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만간 선지자의 말씀대로 세상은 파괴될 것이며, 우리는 의의 통치가 시작되며 죄와 가증함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과 원리는, 그것들을 원리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주의 의로운 행진 앞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으나, 그것들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게 되며, 우리는 그것들을 힘으로 몰아내며 그것들의 영역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정신적인 힘과 선행을 통해, 복음의 행진이 증가되고, 퍼지며, 자라나고 번성할 것입니다.”<sup>1</sup>

영 회장은 복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야 하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또한 우리의 삶을 선함으로 가득 채우려는 노력에도 적용된다. 찬송가를 부르거나 성구를 암송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그런 악한 생각, 이미지들을 여러번 생각에서 몰아내야 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마서 12:21)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우리에게 외설물에 대해 거듭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여러분은 유혹을 받습니다. 온 세상이 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기만적이며 현혹적인 방법으로 성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 잡지, 책, 비디오, 심지어는 음악에서조차 성에 노출됩니다. 이를 피하십시오. 행동보다 말이 쉽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다음에는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저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또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라”(교리와 성약 121:45) 저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깨끗하면,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그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느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sup>2</sup>

기억하십시오. 벌레가 입으로 날아들면, 뱉어버리십시오. ■

주

-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332~333쪽.
2. “깨끗할지이다,” 리아호나, 1996년 7월호, 48쪽.



# 태버내클 수

2006년 6월까지 여기에 보이는 것을 제외한 모든 파이프를 떼어 내어 청소하였으며, 모든 방문자들이 연단을 잘 볼 수 있도록 발코니의 바닥 경사가 더 가팔라졌다. 바닥과 기둥은 보호를 위해 깔개를 깔고 덮개를 둘렀다. 천장 복원도 마무리되었다.



# 리

## 솔

트레이크 태버내클이 2년간 대중에게 문이 닫혀 있는 동안, 인부들은 140년 된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시행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지난 2004년 10월 1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저는 이 건물을 사랑합니다. 보기 드문 건축의 보석인 이 역사적인 건물에서 어떤 것도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저는 오래된 원래의 태버태클이 약한 접합 부분이 단단해지고, ... 강화되어서 그 자연적이고 훌륭한 아름다움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리 장면들이다.





**위: 인부들이 단단한 참나무 의자를 설치하고 있다.** 이것은 원래 사용했던 소나무 의자들을 대신하게 된다. 개척자 장인들이 참나무처럼 보이도록 페인트 칠을 한 원래의 나무 의자는 손상되고 낡았다. 일부는 영구적으로 전시될 것이다.

**오른쪽: 연단 중앙에 대형 무대 리프트가 설치되었다.** 독립된 연단 웨건(역주: 신속한 장면 전환을 위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 무대)과 함께, 이 리프트는 연차 대회 무대, 노년의 모임 무대, 혹은 오케스트라 연주 무대로 변할 수 있다. 각 웨건에는 시청각 장비, 배선 및 냉난방 시설과 상황에 맞는 카펫, 새로운 몰딩 및 총관리 직원들이 대회 진행을 지켜볼 수 있는 화면이 갖춰져 있다.



발코니에 설치된 두 개의 계단 중 하나. 이로써 이층의 출구는 여섯 개가 되었다.



**시청각 시설 개선에는** 다양한 새로운 조명 효과가 포함된다. 삽입된 사진은 오르간의 파이프 양 옆에 설치된 두 개의 화면 중 하나이다. 화면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합창단 의자 뒤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최신의 오디오 장비가 설치되었으나, 태버네클의 유명한 음향 특성은 그대로 보존했다.



**천장을 복원하기 위해 일하는 인부가 여러 층 높이의 비계 위에 서 있다.** 원래의 벽토에 이르기 위해 열네 겹으로 칠한 페인트를 벗겨냈다. 수리를 끝낸 후, 인부들은 태버네클의 뛰어난 음향 특성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벽토와 성분이 같은 벽토를 다시 칠했다. 원래의 천정이 갖고 있던 물결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전문 예술가가 발코니 외관의 인조 마감재를 손질하고 있다. 태버네를 벽과 기둥에 있는 대부분의 인조 나무결은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했다.



아래: 내진 강화의 일환으로, 외부 기둥이 땅 속 깊이 고정되었으며 새로운 철근 콘크리트 기반으로 강화했다. 이 외부 기둥 강화 작업은 보도면 아래부터 시작했다.



청소한 오르간 파이프는 다시 조율한 뒤 재설치했다. 가장 큰 파이프(왼쪽)는 나무로 만들어 졌으며 분리하기에는 너무나 컸다. 파이프들은 재도금되었다.

태버네클 지하의 상당 부분이 개조되었다. 오른쪽 위: 템플 스퀘어에 있는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관리 사무실이 과거 침례당이 있던 곳으로 옮겨갔다. 중앙: 여성更衣실에는 각 합창단원이 자신의 무대 의상을 보관하기 위한 개인 칸막이가 생겼다. 남성 단원들도 비슷한 공간을 갖는다. 아래: 음악 도서실에는 모든 합창 음악의 악보가 보관되며 약 350명의 합창단원을 위한 각 개인의 사물함이 설치되었다. 사서들은 공연 때 부르게 될 음악의 악보가 들어 있는 바인더를 준비하여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둔다.



2005년 12월에 선보인 새로운 알루미늄 지붕. 아래: 태버네클 양 끝에는 "자매 지지대"라고 부르는 넓은 강철 버팀목이 기존의 나무 지지대를 보강하기 위해 덧붙여졌다. 아래 왼쪽: 인부들이 새로운 지붕을 얹기 위해 먼저 합판을 대고 있다.



# 충분한 금식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희생은 여전히 축복을 가져다준다.

릴리 엠 로리머

어렸을 때, 금식 주는 나에게 다소 부담스러웠다. 내 작은 배는 하루 종일 꼬르륵거렸다. 그래서 나는 금식을 마치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 거의 기다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6학년이 되기 전 여름에 나는 금식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깨닫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내가 앓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이 아니었다. 내 몸 상태가 아주 이상했고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았다. 4개월이 지나고, 수많은 전문의들에게 진찰을 받은 후에 비로소 왜 그런지 알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갈증이 나고 탈수증에 빠지기 쉬운 희귀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병은 드물기 때문에 의사들은 내가 매일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말해 줄 수 없었다. 나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냥 약을 받았다.

그 후 금식 주가 되었을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음식과 물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것은 큰 실수였다. 내 병은 단지 몇 시간이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심하게 아프게 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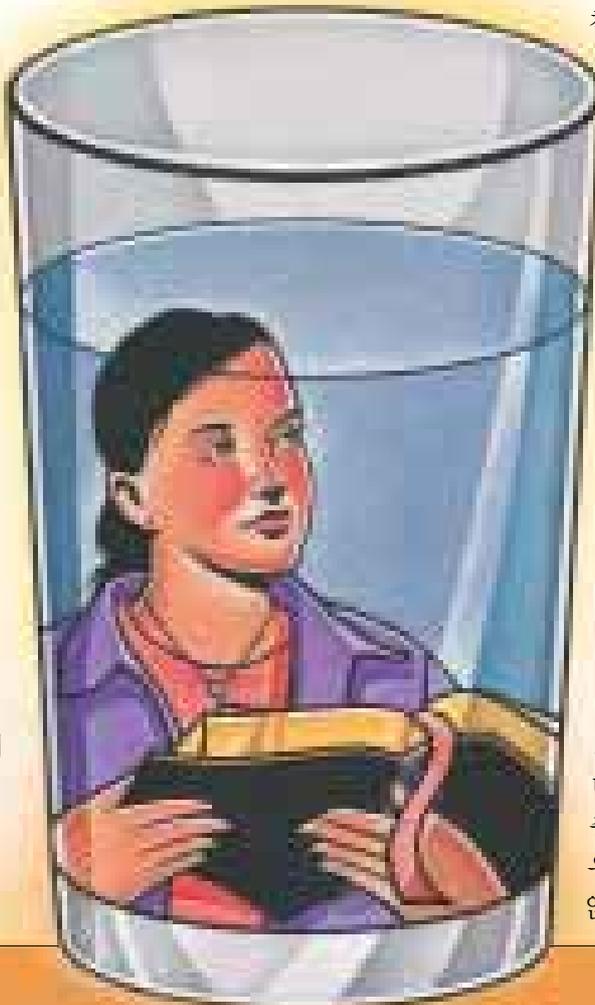
나는 이 때문에 아주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금식할 때 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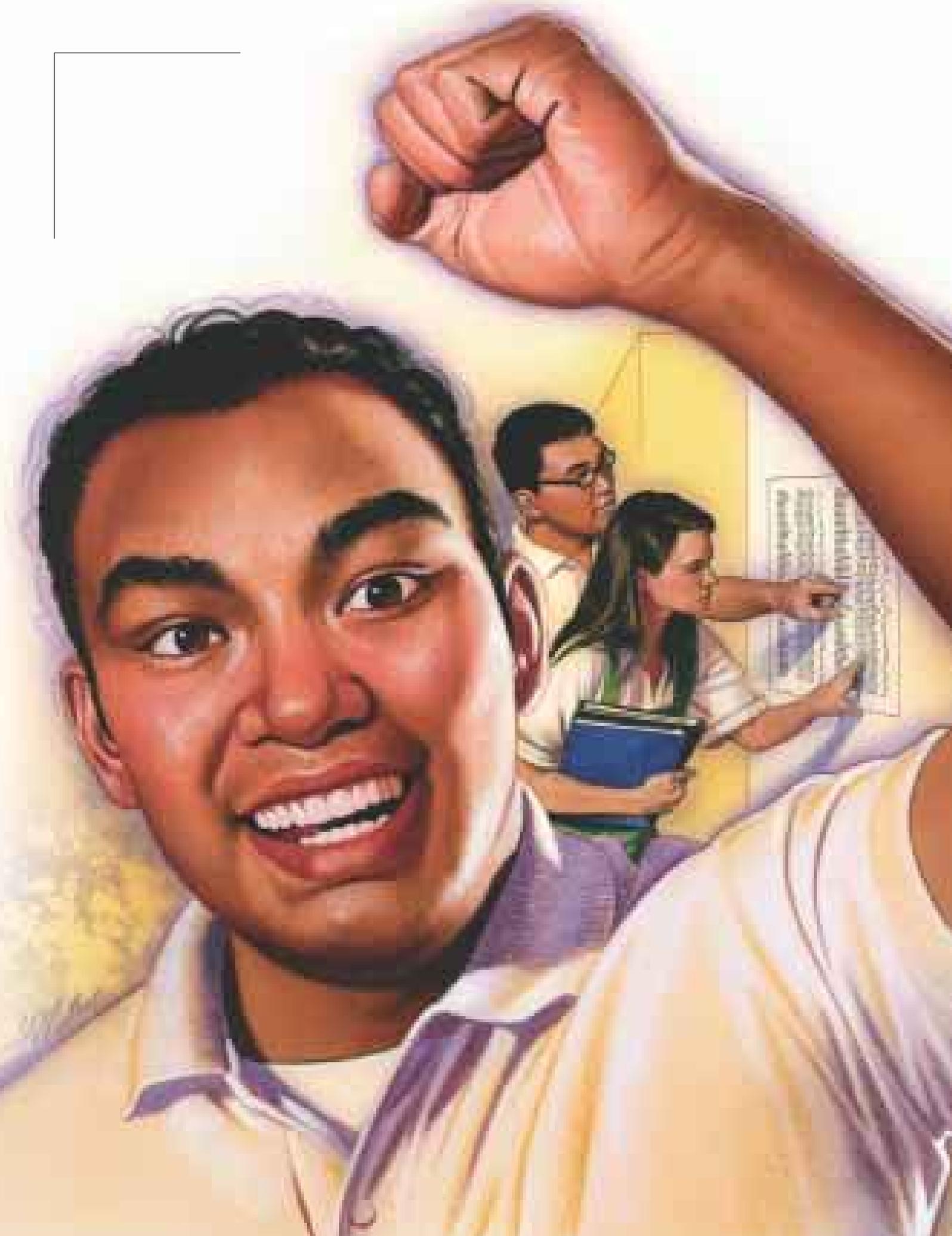
마신다면, 이것은 완전한 금식이 아니야.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아”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이 여러 달 동안 나를 괴롭혔다. 나는 경전에서 금식에 관해 공부하고 이 문제에 관해 많이 기도했다. 또한 부모님과 청년 지도자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느 금식 주에 신약전서(마가복음 12:41~44 참조)에 나오는 과부의 렘돈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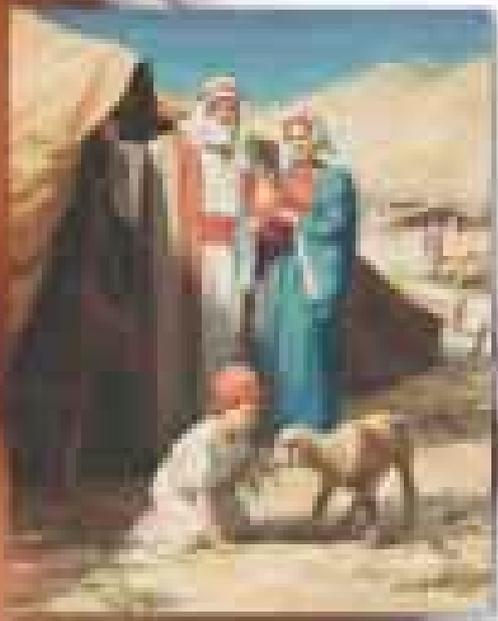
이야기를 읽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과부의 헌금은 보잘것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임을 아셨기 때문에 구주는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아들여셨다. 그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금식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은 나의 희생을 다른 사람의 희생과 비교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평가하신다.

그날 이후로 나는 금식에 관한 확고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나는 또한 금식할 때 영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힘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모사야서 4:27참조) ■





# 번제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 나는 기뻐서 소리쳤다. 그런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어떻게 학업을 희생할 수 있을까?

조셉 레이 브릴런테스

“**하** 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 아브라함이 었드려 [기뻐하며]”  
(창세기 17:15~17;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창세기 17:23 참조)

내가 다닌 고등학교 전체가 내가 기뻐 소리친 것을 들었을 것이다. 다른 학생들은 왜 내가 소리쳤는지 의아해 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필리핀 최고 명문 대학교의 합격생 명단에서 내 이름을 보았을 때, 나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나는 참으로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세기 17:19)

내가 그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경탄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나의 미래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다. 나는 입학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세기 22:1~2)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학위를 받은 후에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학과장을 설득하여 2년 동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휴학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쉽니다. 학과장은 허락하지 않으려 했으며, 제가 가기를 선택한다면 대학에 자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저의 장래를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창세기 22:6)

대학 행정 담당관 사무실 문으로 다가갔을 때, 내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내게 유망한 장래를 포기하더니 정신이 나갔냐고 말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창세기 22:9~10)

“행정 담당관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자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성적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떤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이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부터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선교 사업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2년간 봉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세기 22:11~12)

“네? 제가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학과장님은 휴학은 1년만 되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대학 정책이 최근에 바뀌었나요? 학과장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구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기를 …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세기 22:15~18)

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필리핀 일라칸 선교부에서 봉사한 후 케이슨 시티에 있는 필리핀 대학에 복학해서 공부하다가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로 편입했다. 나는 결혼하여 복음 가운데서 가족을 양육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원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분은 단지 우리가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알기 원하신다. ■

# 알고 있습니까?

## 일지 쓰기 제안

여러분이 일지에 적을 주제를 생각해 내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기억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 이다” 또는 “학창 시절의 가장 좋은 추억은 ... 이다” 또는 “최근에 한 영적인 경험은 ... 였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 (1895~1985)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젊은이 여러분, 노트를 가져와서 영원히 보존될 일지를 기록하십시오. 천사가 영원히 그 책에서 인용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사와 뜻 깊었던 생각, 성취, 실패, 우정과 성공, 감동과 간증을 일지에 적으십시오.” (“천사가 인용할 것입니다,”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25쪽)

## 지도력에 대한 조언



데이비드 오 맥케이 제9대 교회 회장은 (1873~1970) 성공적인 지도자나 교사의 몇 가지 특징에

관해 말씀했다.

1.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과 그분을 섬기려는 진실한 열망, 이러한 영혼의 상태가 성신의 동반과 인도를 받게 해 준다.”

2. “모든 교회 회원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려는 결심과 회원들에 대한 거짓 없는 사랑. 회원을 존경하라, 그러면 회원은 여러분을 존경할 것이다.”

3. “철저한 준비. 성공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알고 있고 또한 그가 인도하는 회원들을 알고 있다.”

4. “유쾌함-억지가 아닌, 희망찬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유쾌함.” (Conference Report, 1968년 10월, 144쪽)



“복음대로 사는 데 전념하지 않는다면 즉,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교리와 성약 4:2)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두움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영적인 빛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츠 장로, “어둠에서 나와 그의 놀라운 빛으로,”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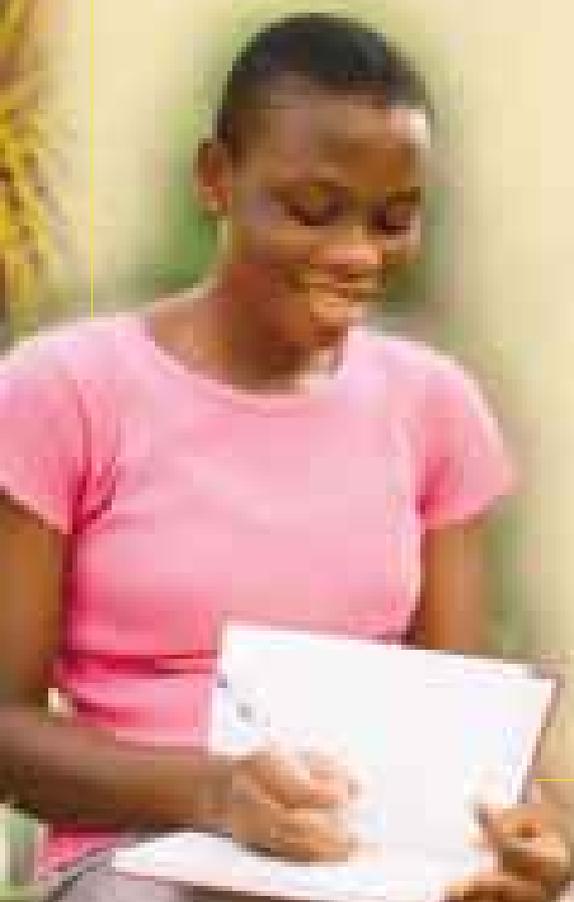
## 말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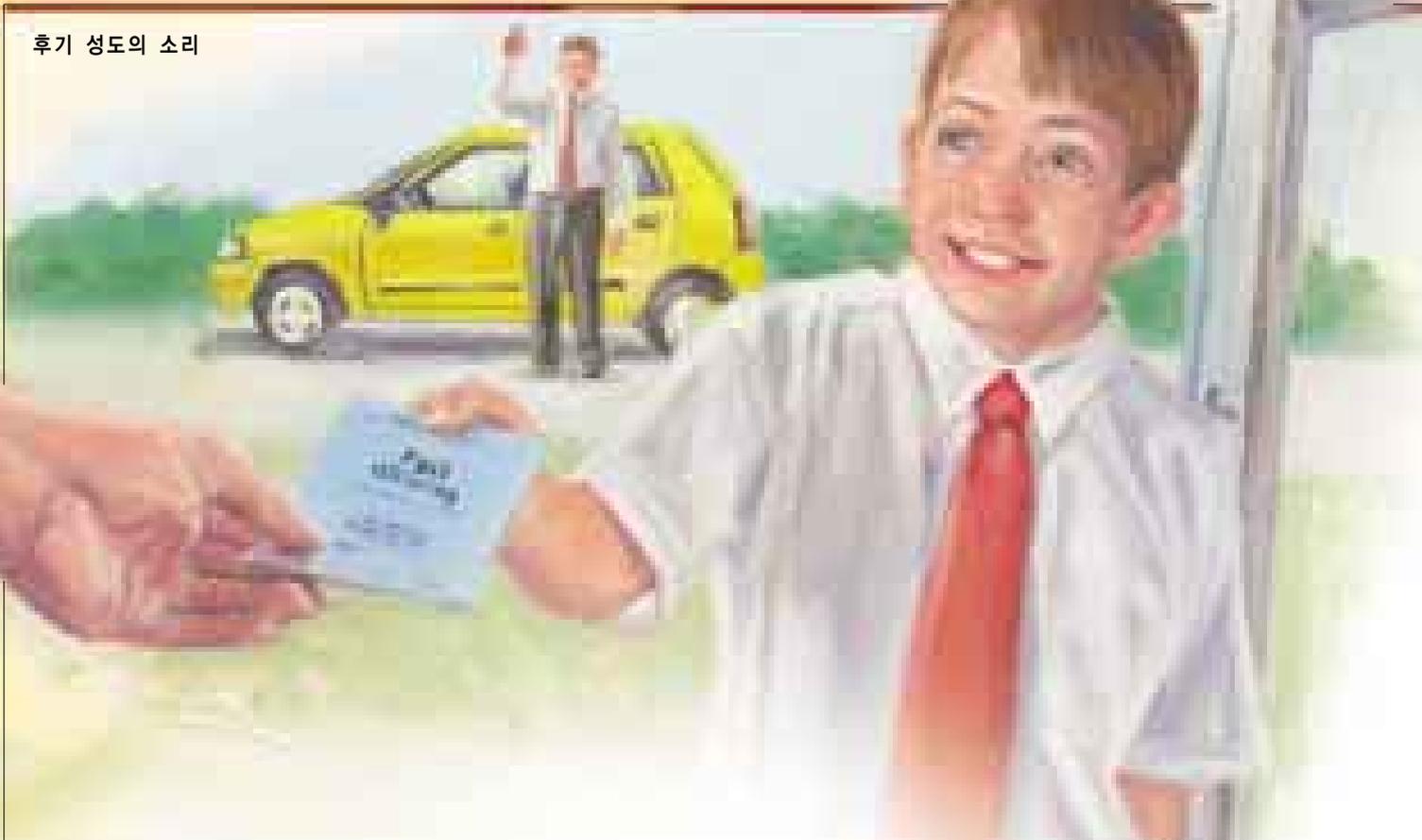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영적인 사망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타락과 우리 자신의 불순종이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의 면전에서 끊어짐으로, 현세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관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됨이라.” (히라맨서 14:16) 우리가 지상에 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참으로 곧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그들을 주의 면전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히라맨서 14:17)

또 다른 영적인 사망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온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불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게 한다. (히라맨서 14:18 참조) 구주는 이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할 때만 그렇게 하신다. (히라맨서 14:19 참조) (신앙에 충실함 [2004], “영적인 죽음,” 160쪽 참조)





## 존 형제의 금식 헌금

그레그 버고인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존 형제가 연단에 서 있었다. 전에는 그가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기는커녕 그를 교회에서 본 적도 없었다. 한달 후에 그는 다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일요일 신권 집행 위원회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청남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우리는 교회 지침서를 읽고 있었고 감독님은 조용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 후 감독님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씀했다. "아론 신권 형제들은 저활동 회원들에게 가서 금식헌금을 수집하기 바랍니다." 감독님은 교사들과 제사들도 참여하라고 하셨다.

나는 놀랐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우리 와드 지역의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는 자동차로 약 35분 걸린다. 너무 멀어 청남들이 회원들의 집에 걸어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금식 헌금을 수집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위원회에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토론하면서 한 방안을 생각해 냈다. 장로 정원회는 형제들을 지명하여 매 금식 주 전 토요일에 청남들을 몇몇 가정에 데려다 주도록 하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는 와드를 여러 지역으로 나눈뒤 형제와 청남이 짝을 이뤄 그곳에 사는 몇몇의 활동 회원과 저활동 회원을 방문하도록 지명했다. 우리는 그 계획이 형제들은 청남을 알게 되고 청남은 장로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청남들에게 그 계획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안식일 복장을 하고 올

것과, 이 일이 와드를 돌볼 거룩한 책임의 일부임을 상기시켰다.

나는 내 동생 앤드류와 함께 가도록 지명 받았다. 그 다음 토요일에 우리는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방문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집에 없었다. 우리가 방문한 마지막 회원은 존 형제였다. 우리는 그를 잘 몰랐다.

앤드류는 차에서 내려 문을 두드리고는 기다렸다. 그가 차로 되돌아오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앤드류는 존 형제와 악수하고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왔습니다. 내일이 금식 주라서 감독님께서 우리에게 회원들을 방문하여 헌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금식 헌금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존 형제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다. 존 형제는 놀라는 눈치였으나,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그는 앤드류에게 정중하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봉투를 건네주었다. 나는 차에서 내렸고, 우리 세 사람은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떠날 때, 존 형제는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며 “다음달에 꼭 또 와라”라고 했다. 앤드류는 교회로 돌아가는 내내 흥분되어 있었다. 교회에서 그는 감독단의 일원에게 그 봉투를 전해주었다.

다음 달에도 존 형제를 방문했다. 그는 이번에도 친절했다. 몇 개월 후, 그는 금식 주에 교회를 참석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토요일 방문이 그에게 일요일 모임을 상기시켜 주어, 그 다음날 그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이다.

존 형제가 교회에 활동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주 기뻐하며 그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다시 활동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그는 정기적으로 참석하였고, 곧 장로 정원회 회장단에 부름 받았다.

우리에게 이 경험의 하이라이트는 존 형제가 성찬식에서 십일조와 금식 헌금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다. 말씀을 끝마치면서 그는 앤드류의 첫 번째 방문에 대해 말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앤드류, 네가 파란색 금식 헌금 봉투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던 그 토요일 아침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을 넌 모를거야. 너는 이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르지만 네가 금식 헌금을 바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내 삶에 축복이

찾아왔단다. 너의 봉사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구나.” ■

## 레모네이드와 한 조각의 빵

아나벨라 디 레이온

**내**가 여섯 살이었을 때, 나의 가족은 고향인 과테말라 케트살테이낭고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이사한 그날 우리는 피곤하고 목이 말랐다. 오빠가 물을 주려고 나를 주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수도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시간은 늦었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상냥한 미소를 지닌 한 중년부인이었다. “이웃이 된 것을 환영한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웃에 사는 텐치타라고 해. 너희들이 아마 물도 마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레모네이드와 빵을 조금 가지고 왔단다.”

나는 레모네이드를 보자 너무 기뻐서 함박 웃음을 지었다. 며칠 후 텐치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초대했다. 그리고 물론경 한 권을 주었다.

우리는 곧 선교사 토론을 가졌다. 3개월 후, 장로들은 우리에게 침례

받으라고 권유했다. 다섯 명의 오빠와 언니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으나 부모님은 준비가 안됐다고 느끼셨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셨고 부모님과 나는 2년 후 내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나는 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족에게 미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다른 가족들처럼 우리 가족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점점 더 대화하게 되고 화합을 이루게 되었으며 참된 교회에서 받은 가르침 때문에 해결책이 주어지리라 믿었다. 우리는 텐치타가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해 준 것에 감사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이사했고, 우리는 그 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13년 후에 우리 가족은 과테말라에 있는 과테말라시티 성전에서 인봉받았고,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남 선교부의 첫 지역에서, 나와 내 동반자는 병든 회원이나 저활동 회원을 자주 방문했다. 어느 날 감독님이 우리에게 편찮으셔서 외출할 수 없는 연로한 자매님 한 분을 방문하라고 했다. 감독님은 그 자매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가 레모네이드라고 했다.

동반자와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자매님은 편찮아 누워 계셨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텐치타 자매는 처음에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나를 알아보고는 미소 지으며 “내가 너에게 레모네이드와 빵을 주었지”라고 말했다.

나 또한 내게 복음을 소개해 주고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게 해 준 그녀에게 감사했다.

레모네이드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은 쉽고도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텐치타 자매가 사랑으로, 또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었기에 그 레모네이드와 빵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녀는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의 삶을 바꾸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수”와 “생명의 떡”(요한복음 4:10; 6:48)에 이르는 길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가족과 나는 이웃에게 레모네이드와 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도 나눈다. ■

## 저를 잘 돌볼 거예요

일레인 피어슨

**새**로운 방문 교육 지명을 훑어보았을 때, 나는 우리 와드의 새 회원의 이름을 보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내 동반자와 나는 제인(가명)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날 아침 그곳에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했다. 제인과

그녀의 세 명의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달 방문을 통해 우리가 제인과 점점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그녀의 아들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어린 두 아들은 내 동반자와 내 곁에 앉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함께 놀았다. 그러나 세 명중 가장 큰 네 살배기 알렉스는 엄마를 자주 방문하는 우리와 그다지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독립적이었고 우리와 친해지기를 주저했다.





내가 제인의 방문 교사가 된지 1년쯤 되었을 때, 제인의 집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남편과 나는 과자와 생수 그리고 장난감 차를 챙겨 우리가 도울 일이 있는지 보러 그곳으로 가라는 영감을 받았다. 우리는 연기가 치솟고 있는 자신의 집 건너편 보도에 서 있는 제인을 발견했다. 제인이 자기 무릎에 매달려 울고 있는 세 자녀들을 달래고 있는 동안 제인의 남편은 소방대원과 함께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알아보고 있었다.

우리가 제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제인은 남편과 함께 있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제인의 어린 두 자녀를 차에 태웠다. 그들은 배고프고 목말라 했다. 나는 음식과 물을 가져가라는 성신의 영감에 감사했다. 아이들은 곧 만족해 했다. 그러나 알렉스는 여전히 엄마를 꼭 붙들고 흐느끼고 있었다. 제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느냐 아들을 달래야 하느냐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제인에게 남편에게 가라고 권했다. 그리고 몸을 숙이고 알렉스에게 엄마가 아빠를 찾으러 가는 동안 내가 안아 줘도 되겠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내가 아이를 팔로 감싸 안아 올리자, 아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제인이 남편을 찾으러 갔을 때, 나는 알렉스의 귀에 대고 따뜻한 말로 그를 달래 주었다.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아졌고 숨소리가 편안해졌다.

우리가 보도 위에 서 있었을 때, 알렉스가 나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이준마가 우리 엄마의 교사니까, 저를

잘 돌볼 거예요.”

알렉스가 그의 엄마의 삶에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내가 그의 엄마의 교사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으로서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알았다. ■

## 기억할 수 없는 선물

게리 알 왕스거드

**아** 버지로부터 받았던 가장 멋진 선물 중 하나는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것에 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수 년 뒤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분 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결혼하지 못하셨다. 부모님의 일반 결혼을 주례하셨던 사랑이 많으신 감독님은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성전에서 결혼하도록 목표를 세우라고 격려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나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까지도 부모님은 성전에 가지 못하셨다. 어머니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족 인봉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때때로 나는 나의 두 번째 생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이 내가 그 선물을 받았던 때이기 때문이다. 11월 초 그날 밤 아버지는 퇴근하고 오셔서 도시락 바구니를 옆에 치워 두고 코트를 벗으신 후 나를 들어올리시며 “아들아,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선물을 살 여유 돈이 없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놀랐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조금 사용한 담배갑을 꺼내서 나에게 주셨다. 어머니가 말리려 하자 아버지는 마치 “이것은 나와 내 아들 사이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손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 날 동안 이것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아들아, 나는 결심했다. 네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것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너에게 주는 선물은 내가 담배를 끊고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것이란다.”

그것이 아버지의 흡연 습관의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갑자기 담배를 끊는 것은 아버지에게 몹시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기억할 수 없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내게 준 특별한 선물이었다. 사실 그 이상의 것이었다.

몇 달 후에, 동생을 임신하고 있었던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유타 로간 성전으로 가 그곳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었다.

나는 오래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

**영에 감동함**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비길 데 없이 훌륭한 잡지인 리아호나를 주셨습니다. 진실되고 겸손하게 진리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잡지가 가져다주는 영에 감동될 것입니다.

리아호나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저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빅토리노 에프 델라 크루즈 2세, 필리핀

**가족을 위한 간행물**

우리는 훌륭한 간행물인 리아호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매달 리아호나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이 잡지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7월 호에서 우리는 아들의 침례와 확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훌륭한 기사들을 잘 읽었습니다. 리아호나에 실린 고화질의 사진들은 아직 글을 읽을 수는 없지만 시각 자료를 통한 메시지는 이해할 수 있는 제 어린 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일요일 오후 우리는 “일요일 상자: 연필 돌리기” 놀이를 하였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의 유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카롤라 가족, 스페인

**특별히 인상적임**

저는 수년 동안 꾸준히 리아호나를 읽어 왔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이 잡지를 읽으며, 늘 고양되곤 합니다. 2006년 7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의 글 “독수리 날개 위에”가 특별히 인상적이었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칼날라, 독일

**가정 복음 교육에 도움이 됨**

저는 2006년 1월 호에 실렸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주님의 청사진”이란 제목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희 가족을 고양시켰고 저의 가정 복음 교육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이메 크루즈, 나카라과

**리아호나가 신앙을 증진시키다**

우리는 정말 축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겪게 되는 이 위험한 삶에서 살아 남도록 도와주는 지침이자 도구인, 리아호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리아호나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현재 저 혼자만 교회 회원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아호나에는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마크 안소니 푸농바안, 필리핀

**크리스마스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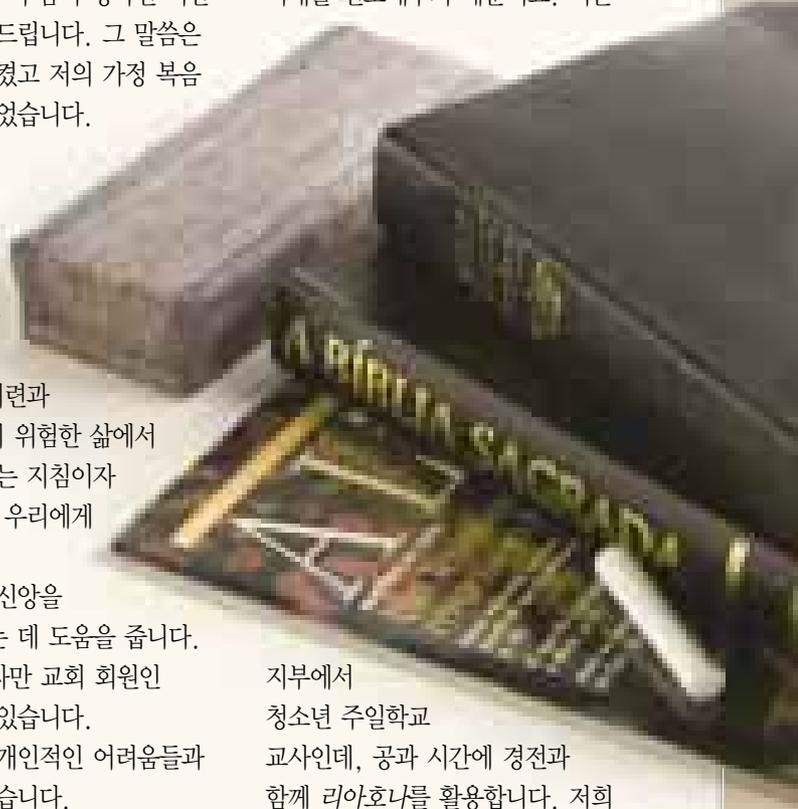
저는 친구에게 2006년 12월호 리아호나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그것을 읽은 뒤 훌륭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토록 멋진 선물을 줘서 고마워. 내 삶은 변화되었고, 나는 이 훌륭한 교회의 회원이 될 준비가 되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데려가는 일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크웨이 아산베, 가나

**공과 보조 자료**

교회 회원으로서 저의 삶은 더욱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리아호나가 우리 시대를 인도해주기 때문이죠. 저는



지부에서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인데, 공과 시간에 경전과 함께 리아호나를 활용합니다. 저희 학생들과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성과를 축하드립니다.

야테일슨 드 소자 나시멘토, 브라질

여러분의 의견을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Liahona, Comment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편지는 분량이나 명확성을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 친구들



# 거룩한 땅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제**가 집사로 성임되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감독단은 성찬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성스러운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복장, 품위 있는 행동,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찬을 전달하는 절차를 배우면서 저는 우리 와드에 나오시는 신체가 마비된 루이스 맥도널드 형제님이 성스러운 상징물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맥도널드 형제님이 앉아 있는 좌석 줄로 성찬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던 때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 훌륭한 형제님께 다가갈 때 저는



몬슨 회장님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신권 봉사  
경험을 회상합니다.

두렵고 망설였으나, 그때, 저는 그분이 미소 지으며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성찬을 취하려는 그분의 소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왼손에 성찬기를 들고 저는 작은 빵 조각을 집어 그분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물도 같은 방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맥도널드 형제님께 성찬을 전달하는 특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좀 더 훌륭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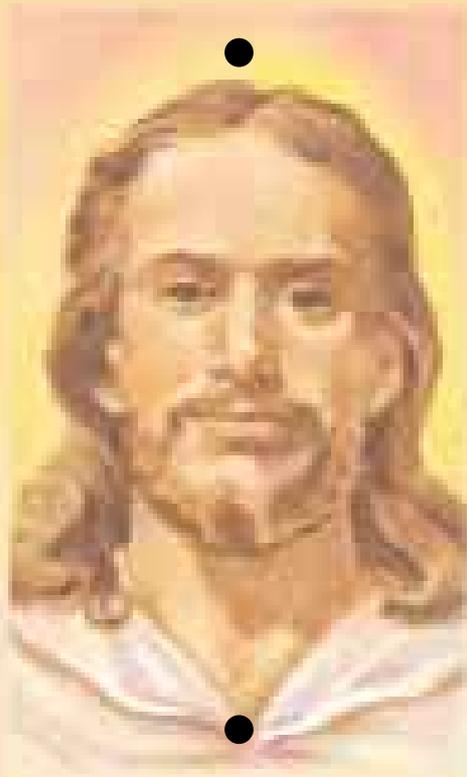
2005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 생각해 볼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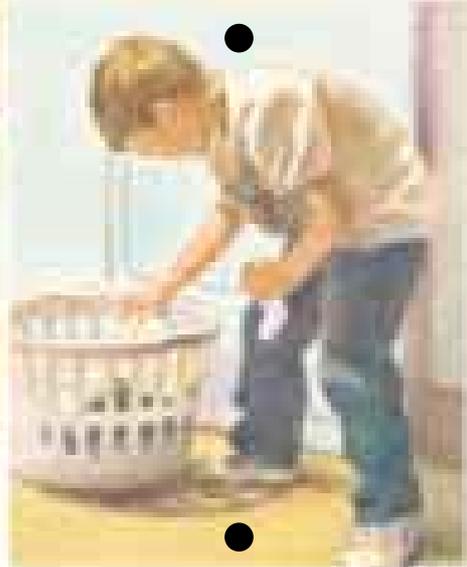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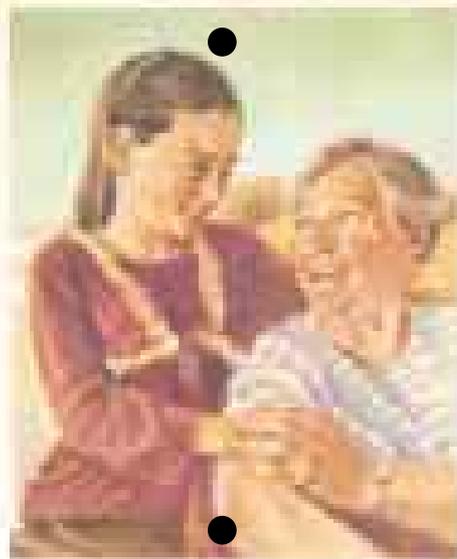
1. 처음에 몬슨 회장님은 맥도널드 형제님에게 성찬을 전달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의 느낌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2. 여러분은 몬슨 회장님이 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나요? 맥도널드 형제님은 어떻게 느꼈다고 생각하나요?

3. 성찬을 취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여러분이 아론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성찬 전달에 관해 무엇을 배웠나요?
4.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았나요?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모사이아서 2장 17절



주: 잡지를 오리고 싶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이 활동을 복사하거나 인쇄한다. 영어로 된 자료를 원하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다른 언어로 된 자료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 주님 봉사하셨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니라]”(모사이사서 2:17)

## 엘리자베스 리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즐기셨습니다. 그분은 봉사의 완벽한 모범이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누가복음 22: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인과 종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주인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놀랍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필멸의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가난한 자를 위해 봉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배고픈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지상에 오실 때,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태복음 25:35~36)

예수님은 의인들 자신이 그분께 한 그 어떤 일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주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소는 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말 하기, 형제 자매 돕기, 부모님께 순종하기 등은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봉사할 때,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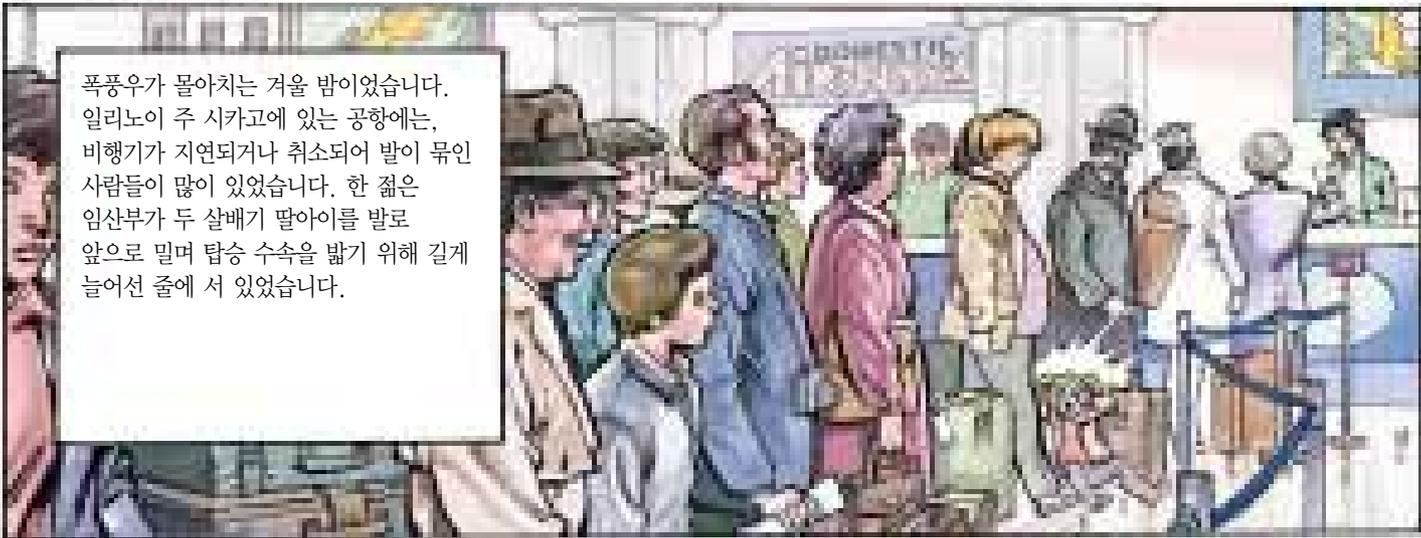
친4쪽을 두꺼운 종이에 붙인 다음 여덟 조각으로 오리고 표시된 곳에 구멍을 뚫는다. 구주 그림 윗부분에 난 구멍을 털실이나 줄로 묶는다. 또 다른 줄은 그리스도 사진의 아래 부분을 경전과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 여섯 개의 줄을 더 사용하여 각각의 봉사 활동 그림들을 위에 있는 그림들 아래 부분과 연결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이 모빌을 잘 보이는 곳에 건다.

##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화살통과 화살을 이용하여 니파이의 부러진 활 이야기(니파이전서 16:18~32 참조)를 들려준다. 화살통과 화살 그림을 칠판에 그리거나 종이로 만들 수도 있다. 각각의 화살에 질문을 붙인다. 예를 들어, “니파이는 어디로 사냥하러 가면 좋을지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보았나요?(그의 아버지, 리하이) 니파이는 사냥감을 어떻게 했나요?(가족들과 나누어 먹었다) 각각의 화살에 순종이나 나눔과 같이 질문과 관련된 낱말을 적는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면, 각각의 화살을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화살에 적힌 자질들을 자신들의 가족에게 적용해 보라고 말한다. “저는 아빠가 점심 도시락을 싸는 일을 도울 수 있어요” 와 같은 구체적인 예를 말하게 한다. 가족 구성원의 봉사가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했는지 경험을 나눈다.
2. 앞치마를 두르고 냅킨으로 덮은 쟁반을 든 채 교실로 들어온다. 아이들에게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5장 13~14절을 찾아보게 한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에 밑줄을 긋게 한다. 쟁반에 또 다른 참조 성구들이나 봉사하는 그림들, 혹은 여러분이 들려줄 이야기에 나오는 구절을 담는다. 참조 성구를 바깥 면에 붙인 작은 컵이나 봉사하는 그림을 담은 접시, 혹은 이야기 구절을 붙인 수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한 가지 물건을 골라 살펴보거나 읽어보게 한 후, 그 내용을 말하게 한다.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리아호나에 실린 이야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작은 봉사 행위**



폭풍우가 몰아치는 겨울 밤이었습니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는 공항에는,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발이 묶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임산부가 두 살배기 딸아이를 발로 앞으로 밀며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그 누구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우는 아이를 안아 주지 않는 거지?

정말 형편없는 엄마군.

친절한 미소를 띄며 김볼 장로가 이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네 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제게 아무것도 들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제 아기마저도 말이죠.

김볼 장로는 우는 아이를 안아 올려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고는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진정되자 그는 다른 승객들과 공항 직원들에게 여인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와서 탑승할 때까지 앉아서 좀 쉬도록 해요.

그 여성의 스트레스가 경감되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분이야! 나를 도와주셨던 그분.

몇 달 후, 그녀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21년 후, 김볼 회장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실하게 선교사업을 하였고 지금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닙니다. 그 지독했던 밤에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볼 회장은 그의 작은 봉사 행위가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낳아 행복했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이사야서 58:13 참조)

#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함

줄리 워델  
교회 잡지

1.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쉬셨습니다.



3. 교회에 참석하고 성찬을 취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2. 그분들은 제7일이 거룩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날은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안식을 취하고 그분들에 대해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7. 아픈 사람들이나 노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의  
방법입니다.



4. 가정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5.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듣거나, 조용한  
게임을 하고 가족과 함께 산책할 수  
있습니다. 경전과 경전 이야기, 또는  
친구들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6. 안식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친척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선교사,  
군 복무중인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8.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



# 성도들을 가득 실은 트럭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교리와 성약 59:9)

저는 멕시코 몬테레이 누에보 레온 주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충실한 후기  
성도였으며, 우리는 교회에 단 한 번도 빠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여섯 살쯤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는 공사  
자재들과 정원 흙을 나르는 데 사용하는 낡은 덤프 트럭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매주 일요일, 제 누이들과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앞 좌석에 타시면 트럭의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사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트럭에 함께  
태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곤잘레스 가족을 태웠고,  
솔라노스 가족과 그외 다른 이들을 태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도착할 때 즈음이면 덤프 트럭은 흙 대신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에 살던 사람들은 20명 이상의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흰 셔츠에 넥타이, 혹은 차마 정장을



가족과 함께한 아기 벤자민 드 호요스  
장로(중간 줄)



현재 남 아메리카 북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벤하민 데이  
오요스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벨빈 레빗, 교회 잡지

하고 먼지 날리는 덤프트럭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들은 단지 이 광경을 즐기기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웃었지만 우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1960년대까지 매주 일요일에 두 번씩 반복했습니다.

트럭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우리 가족은 걸었습니다. 가는 데 한 시간, 오는 데 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가 오거나, 춥거나, 찌는 듯이 무더위도 한결같이 걸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침과 오후에 교회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모임 모두 참석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제가 몬테레이로 돌아왔을 때, 덤프트럭을 함께 탔던 다른 사람들 모두 여전히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들을 단합시켰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든 모임에 참석합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그때보다 덜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모임에 가십시오. 걸어서 가든지 차로 가든지 덤프 트럭으로 가든지 간에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





# 끝없는 미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린도전서 16:14)

레이 골드럽  
실화에 근거함

**마**커스는 아빠의 공과를 들으며 탁탁 소리내며 타는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단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야.”라고 아빠가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닥불을 둘러싸고 통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아빠?” 하고 말커스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모닥불에 나무를 좀 더 집어넣으셨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란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 받을 수 없지.”라고 아빠가 설명하셨습니다.

말커스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빠는 가족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말커스가 사랑이 무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자 사랑의 예를 생각해 볼까?”

엄마가 막대기에 꽂은 마시멜로를 뒤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랜튼 아주머니가 넘어져 엉덩이를 다치셨을 때, 난 그분의 집안 일을 도와드렸지.”

태너는 지난 주에 자신이 도시 빈민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해

음식과 의복을 모으는 집사 정원회를 어떻게 도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애실리는 다른 소녀들이 무시해 버린 한 이웃 여자 아이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빠는 존슨씨가 휠체어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지붕 고치는 일을 도와드리셨단다.”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조를 돌보는 것도 되나요?” 말커스가 물었습니다. 조조는 말커스가 키우는 햄스터입니다. “저는 조조에게 먹이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이부자리에 쓰라고 새 양말도 주었어요.” 말커스는 구운 마시멜로를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우리가 조조를 포함한 다른 이들을 위해 하는 모든 친절한 행위나 봉사가 사랑이란다.”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빠나 엄마, 태너 형이나 애실리 누나가 하는 것처럼 조조보다도 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어리겠죠.”라고 말커스가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반드시 커야 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렇지 않니, 말커스? 또, 어리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니?”라고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말커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네가 도울 누군가를 찾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해 보지 그러니, 그러면 네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될 거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고 말커스가 물었습니다.

애설리가 입가에 묻은 마시멜로 자국을 닦아내어 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방금 먹은 마시멜로처럼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게 될 거야.”

그날 밤, 말커스는 침낭 안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그는 나뭇가지가 텐트 밖을 비벼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가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린 꼬마이지만, 아빠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 반드시 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게 주어진 일들을 다하고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조조와 가족들을 돕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고, 저도 그분과 같이 되고 싶어요.”

2주 후 어느 토요일 오후, 말커스는 자기 집 꽃밭에서 엄마와 나란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에

있는 그네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 왈튼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하고 말커스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꽃 쪽으로 구부리고 있던 몸을 일으키시며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약 1년 전에 왈튼 씨가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몹시 그리워하시지. 가끔 더 괴로운 날들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들 중 하루인 것 같구나.”

말커스는 일어나 마당의 경계가 되는 낮은 울타리 너머로 왈튼 아주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아빠가 모닥불에 나무를 좀 더 집어 넣으셨을 때처럼 강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집에 편 커다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따다가 왈튼 아주머니께 드려도 될까요?” 하고 말커스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잠시 후 말커스는 왈튼 아주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커스는 그녀에게 꽃을 건네며 “아주머니께 드리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꽃을 받아 들고는 말커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말** 커스는  
그녀에게 꽃을  
건네며  
“아주머니께 드리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네에 올라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왈튼 아주머니는 말커스의 손을 토닥여 주었고, 두 사람은 그곳에 함께 앉아 그녀의 단풍나무에서 지저귀는 빨간 새 두 마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왈튼 아주머니가 말커스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넌 정말 끊임없이 미소 짓는구나.”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 그거 아니?” 말커스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너의 미소가 찾아왔단다. 고마워.”

그날 밤 말커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깨끗한 나무껍질 톱밥을 햄스터 우리에 넣어 주었습니다. “조조, 오늘 난 꽃밭에서 엄마와 함께 일했고 왈튼 아주머니가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드렸어. 그 일로 나도 행복해졌단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반드시 커야 하는 건 아냐. 난 지금 당장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



“우리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우정 증진의 손길,”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30쪽.



# 성전 카드

2003년 잡지와 2005년 4월호에는 성전 카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성전들이 헌납 되었습니다.

이 쪽을 잡지에서 떼어,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카드를 올려내세요. 그 카드들을 예전에 실렸던 카드에 추가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드랜드 성전**

2003년 9월 14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헌납



**가나 아크라 성전**

2004년 1월 11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헌납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

2004년 5월 23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헌납



**뉴욕 맨해튼 성전**

2004년 6월 13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헌납



**텍사스 샌안토니오 성전**

2005년 5월 22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헌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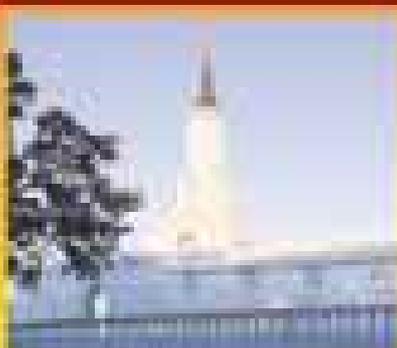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2005년 8월 7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헌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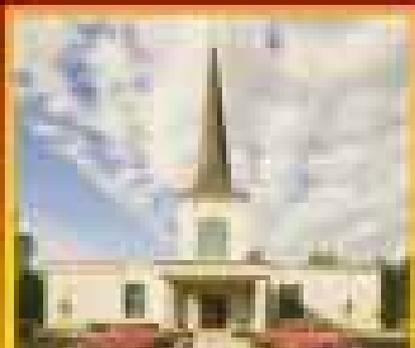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성전**

2005년 8월 28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헌납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성전**

2006년 9월 3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헌납



**핀란드 헬싱키 성전**

2006년 10월 22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헌납

캘리포니아 레드랜드 성전 사진 촬영: 켈트 브루스터, 가나 아크라 성전,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뉴욕 맨해튼 성전, 뉴욕 맨해튼 성전, 텍사스 샌안토니오 성전,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 사진 촬영: 에릭 라이머,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몬드, 텍사스 샌안토니오 성전,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성전, 핀란드 헬싱키 성전 사진 촬영: 존 롱그,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성전 사진 촬영: 켈트 시 앤더슨

주: 2003년 및 2005년 잡지에 실린 성전 카드를 찾고 싶거나 이 페이지를 잡지에서 오리고 싶지 않으면, [www.lds.org](http://www.lds.org)를 방문한다. 영어 자료를 원하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은 자랍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라”(모사이야서 2:17)

## 새로 부름 받은 세 명의 칠십인 회장단

**칠** 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 세 명이 2007년 8월 15일자로 칠십인 회장단에 부름 받았다. 켄틴 엘 쿡 장로,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는 찰스 디디 에이 장로,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로버트 시 옥스 장로의 후임으로 부름을 받았다.

### 켄틴 엘 쿡 장로



켄틴 엘 쿡 장로는 1998년 4월 4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 받았다. 그는 1996년 4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했다.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그는 북미 동남 지역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다.

쿡 장로는 선교사부의 집행 책임자로 봉사했으며 북미 서북 지역과 태평양 군도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또한 필리핀 및 미크로네시아 지역 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하기도 했다.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쿡 장로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을 당시, 서터 헬스 시스템의 부회장이었다. 또한 캘리포니아 건강관리 시스템의 회장, 최고 경영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그 전에는 카, 맥클리언, 잉거줄, 탐슨 앤 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법률 회사의 경영 파트너였다.

쿡 장로는 영국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감독,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 지역 대표, 지역 칠십인으로도 봉사했다.

1940년 9월 8일 미국 유타주 로건에서 태어난 켄틴 라마 쿡은 1962년 11월에 매리 개디와 결혼하여 세 자녀와 아홉 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는 2001년 3월 31일에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 받았다. 그는 1994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했다.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그는 아이다호 지역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다.

그는 남미 북 지역과 브라질 북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브라질과 남미 남 지역 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했다.

그는 젊은 시절 상파울루에서 마케팅을 공부했으며, 훗날 교회 교육 기구의 여러 직책에서 13년간 봉사했고,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을 당시 그는 상파울루에서 종교 교육원 원장이었다.

코스타 장로는 교회에서 종교 교육원 및 세미나 리 교사, 감독단 보좌,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보좌, 선교부 회장 및 지역 대표로 봉사했다.

1949년 3월 25일 브라질 산토스에서 태어난 클라우디오 로베르토 멘데스 코스타는 1978년에 마가렛 페르난데스 몰가도와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두었고 한 명의 손자와 세 명의 손녀를 두고 있다.

###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는 2001년 3월 31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 받았다.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그는 북미 중부 지역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다.

스노우 장로는 신권부의 집행 책임자, 아프리카 동남 지역 회장 및 같은 지역의 지역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스노우 장로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기 전 스노우 장로는 스노우 너퍼라는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으며, 자신의 지역 학교 위원회 회원 및 회장, 유타 주 교육 평의회 회장, 서부 주 고등 교육 위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 사업을 후원했다.

스노우 장로는 독일 북 선교부에서 전

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캘리포니아 산 페르난도 선교부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스티븐 에라스티스 스노우는 1949년 11월 23일, 미국 유

타 주 세인트조지에서 태어났으며, 1971년 6월에 필리스 스 콰이어와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네 명의 아들과 여섯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



페루의 영부인인 피랄 노레즈 데 가르샤(컴퓨터 앞) 여사와 그녀의 딸, 조세피나 가르샤 노레즈(영부인의 왼쪽)가 교회의 가족 역사 도서관에서 그들의 조상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 페루와 파라과이의 영부인들, 인도주의 노력을 직접 보다

**솔** 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는 4월 동안, 페루와 파라과이의 영부인들이 교회의 인도주의 프로그램과 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직접 보았다.

페루의 영부인 피랄 노레즈 데 가르샤 여사와 파라과이의 영부인 마리아 글로리아 페나오 데 두아르테 여사는 자국 국민들을 돕기 위해 펼치고 있는 자구적 노력

을 교회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복지 광장 및 인도주의 센터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했다.

페루의 영부인은 교회 지도자와 브리검 영 대학교의 전 교직원들 및 학생들에게 그녀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인 셈브란도(Sembrando)를 소개했다. 셈브란도는 페루의 고산 지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가르샤 여사는 유타에 있는 동안, 교회가 페루에 1,000개의 휠체어와 45톤의 아트밋(영양실조와 기아를 이겨낼 수 있는 보조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아르테 여사와 파라과이의 대표들은 48개의 위생용품 세트를 직접 만들었다. 이 세트들은 재해 지역으로 보내지며, 치솔, 치약, 비누와 행주 등의 물품들이 담겨 있다. 파라과이에 있는 두아르테 여사의 재단인 REPADEH (인간 개발을 위한 파라과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조 및 구제 활동을 교회가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협정도 체결되었다. 이 재단은 작년에 이미 교회와 협력하여 2,000여 개의 휠체어를 제공했다. ■



파라과이의 영부인 마리아 글로리아 페나오 데 두아르테 여사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를 만나고 있다.

## 교회 박물관의 새로운 전시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의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조명하다

보니 보이드, 교회 잡지

**18**42년 3월 17일, 상호부조회가 창립되었을 때, 에머 스미스는,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낼 것입니다.” (Relief Society Minutebook[상호부조회의 사록] 1842년 3월~1844년 3월, 1842년 3월 17일자 기록, 12쪽,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라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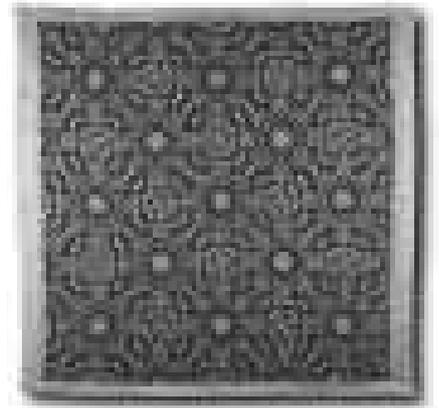
이 선언은 갓 피어난 조직의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제는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에서 아주 특별한 ‘여성의 은사 선집’이라 이름붙인 새로운 전시물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전시회는 전 세계 상호부조회 자매들

의 은사들과 재능들을 대변하는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에머가 한 놀라운 선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린다.

전시회에 포함된 것 중, 역사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전시품 중 하나는 상호부조회의 설립자들이 각 모임의 진행을 기록한 1842년 의사록이다.

*A Record of the Organization and Proceedings of the Female Relief Society of Nauvoo*(조직의 기록 및 나부여성 상호부조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의 이 원고에는 1842년부터 1844년까지 나부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모임의 의사록이 들어 있다. 의사록에 담겨 있는 여러 인용구들은 전 세계의 회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이 의사록은 후기 성도 여성



퀼트는 교회 선교사들을 따라 본래 퀼트가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지역들, 예를 들면 타히티와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 퀼트를 만든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퀼트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녀의 어머니는 초기 선교사들로부터 배웠다. 이 퀼트의 디자인은 과일과 식용 씨앗을 만들어내는 타히티산 나무, 헤이파라(Heifara)의 무늬인데 이것은 판다누스(역자주: 손바닥처럼 생긴 열대 식물)를 의미한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나부의 첫 번째 여성 상호부조회 서기로, 의사록의 상당 부분을 직접 기록했다. 그녀는 이 소중한 문서를 가지고 1847년 대륙을 횡단했으며, 1868년에 시작된, 유타와 주변 지역에서 와드 상호 부조회를 재설립하는 감독들을 돕는데 활용하였다. 본부 상호부조회의 두 번째 회장으로써, 그녀는 청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조직 설립에서 여성들을 감독했다.



2003년 10월 연차대회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앤 핑그리 자매는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알게 된 여성들이 추천서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없이 자신의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걸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 이후에 이 성도들의 땅에 성전이 헌납되었다.



상호부조회가 창립되고 난지 얼마 후, 여성들은 나무의 관할 구역 또는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기 위해 보내졌다. 오늘날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방문 교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책임은 계속해서 친자매와 같은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다.

1876년 브리검 영은 에들린 웰스에게 밀 저장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 여성들은 밀을 모았으나 나중에는 자신들의 기금으로 밀과 밭을 구입했다. 수년 동안, 그들의 밀과 밀 기금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유럽인의 구호를 비롯한 여러 자애로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밀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상호부조회 모토를 상징하게 되었다.



#### 상호부조회 의사록에서 인용한 글

**상**호부조회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일도 해야 한다.”(조셉 스미스, Relief Society Minutebook, 1842년 6월 9일)

“이 시대에 유행하는 풍습이 우리를 인도해서는 안됩니다. 시온의 딸로서 우리는 전 세계에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엘리자 알 스노우, Relief Society Minutebook, 1842년 3월 17일)

“[저는]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주실 재능들과 축복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뉴얼 케이 휘트니 감독, Relief Society Minutebook, 1842년 5월

27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핍박 받은 자들의 필요 사항을 채워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사라 클리브랜드, Relief Society Minutebook, 1842년 3월 17일)

“[저는] 우리가 왕국의 것들에 대해서로 이야기하고 이 눈물의 휘장을 통과해 나가는 동안 서로를 위로하고 북돋아 주기 위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 기쁩니다.”(엘리자베스 엔 휘트니, Relief Society Minutebook, 1843년 7월 15일)

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서가 되고 있다.

상호부조회의 선행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 여러 역사적, 현대적 미술품, 글, 일상의 소재들이 포함된 6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후기 성도 여성들은 수많은 활동과 행사들에 참여해 왔으며, 이러한 행사들의 결과는 자매애와 봉사라는 놀라운 유산들을 만들어왔고 또한 만들어 가고 있다.

“160여년 전에 상호부조회가 창립된 이래로, 전 세계의 후기 성도 여성들은 헤아릴 수 없는 동정심과 봉사 활동들을 수행해 왔습니다.”라고 전시관 관장인 마조리 콘터는 말한다. “이 봉사는 놀라운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상호부조회에 자매애라는 유산과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시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아내

이자 초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에머 스미스의 그림 인쇄물, 음악, 퀴트, 요리 책 및 전 세계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든 작품 등이 주류를 이룬다.

소장품 중에는 음악가로 성공한 교회 회원 글래디스 나이트가 수상한 그래미 상도 있다. 나이트 자매는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그들의 재능들을 발전시키는데 그녀의 훌륭한 재능들을 사용해 왔다.

박물관과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www.lds.org/churchhistory/museum](http://www.lds.org/churchhistory/museum)를 방문하도록 한다. ■



배스쉬버 스미스의 물문경 한 페이지는 접혀진 상태로 남아 있다. 하이럼 스미스를 기리는 뜻으로 보인다.

## 교회, 조지 에이 스미스와 배스쉬버 스미스의 유품을 받다

존 엘 하트, Church News

**테** 이블에 펼쳐진 조지 에이 스미스와 배스쉬버 윌슨 (비글러) 스미스의 소유물들은 교회 역사의 한 세기를 엮는다.

근시였던 그의 여러 안경 소장품에서부터 초기 교회에 대한 시각적 역사 자료가 되는 사진에 이르는 이 유품들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부부들 중 한 쌍의 인간애를 보여준다.

물문경, 여성용 머리 장식,페이즐리 직물로 짠 숄, 손수 만든 것발, 여러 사진첩, 편지, 성지 여행의 스크랩북은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관장인 리차드 오만이 받은 몇 개의 상자에 들어 있는 것들 중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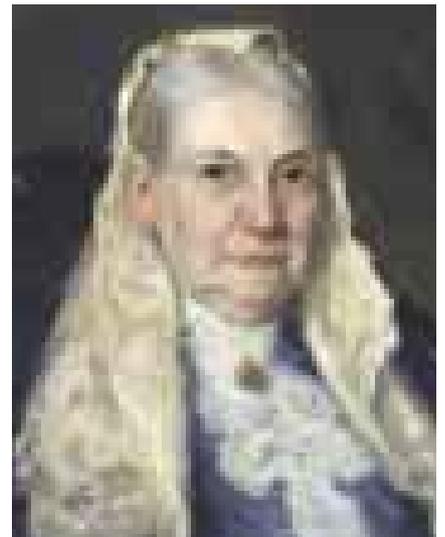
조지 에이는 알려진 바와 같이, 그가 침례 받았던 1832년부터 1875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교회에서 매우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사촌이자 열정적인 개종자로서, 그는 “저는 항상 조셉의 친구였습니다. 그의 적들은 저의 적들입니다.”라고 말했다.(Preston Nibley, “Youngest Modern Apostle,” *Church News*, 1950~1951

년, 주간 연재물에 실렸던 조지 에이 스미스의 생애) 1834년, 그는 시온 진영과 함께 여행했으며, 1838년, 병환 중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미주리 주에서 쫓겨났다. 1840년에는 너무 아파서 거의 걸을



조지 에이 스미스



배스쉬버 스미스

수 없을 정도였지만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는 훗날 유명한 개척자가 되었으며 유타 주 세인트조지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는 또한 교회의 역사가와 제일회장단 제1보좌가 되었다.

그의 아내인 배스쉬버 (배스-쉬-버라고 발음함)는 본부 상호부조회의 네 번째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녀는 *Woman's Exponent*(여성의 대변자)의 출판을 육성했으며 여성의 선거권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녀가 꼼꼼하게 보존한 개척자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과 지역의 축하 행사에서 모은 구겨진 빨간색, 흰색, 파란색 리본이 담긴 상자들은 그녀가 그 당시 열렸던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고 가족을 사랑했음을 말해준다.

기록 보관자인 크리스티 베스트에 의하면 그녀는 다섯 세대에 걸쳐 기록을 보

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다고 한다. “저는 배스쉬버를 가족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 면에서, 즉 교회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 면에서 바라봅니다.”

배스쉬버의 물문경은 하이럼 스미스가 순교 직전에 읽었던 바로 그 책으로, 교리와 성약 135편 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더서의 한쪽 모퉁이가 아직까지도 접혀 있다. 스미스 장로는 그 물문경을 출판한 영국에서 이 책을 구입하였다. 또한 이 책에는 배스쉬버의 결혼 전 성이 적혀 있다. 그는 선교사 초창기인 1837년에 배스쉬버를 만났고 그녀의 집에 묵었다. 그는 그녀가 열다섯 살, 침례 받을 당시 그곳에 있었으며 20세에 “...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보존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3년 안에 결혼하자고 잠정적으로 계획했다.” 그는 그곳에서 야유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버티기 위해 두 시간 반 동안 설교하기도 했다. (“Youngest Modern Apostle,” *Church News*, 1950~1951년)

그로부터 3년 후, 전능하신 분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보존해 주셨지만 그들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 편에 살게 되었다.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에 갖부름 받은 사도는 이렇게 적었다. “배스쉬버 자매에게 그녀를 잊지 않았다고 전해 주세요. ... 그녀가 만약 결혼했거든, 저 대신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녀가 아직 독신이라면, 저와 함께 행복하도록 빌어주세요.”

그는 1841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그의 부모님을 만나 뵈 후, 곧장 비글러 씨 집으로 향했다. 그와 배스쉬버는 열흘 후인 7월 25일에 결혼했다.

1844년, 그는 미시간에서 복음을 전

파하고 있었다. 스미스의 유품들 중 작은 팸플릿은 그때, 그곳에서 썼던 것으로 조셉 스미스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고자 도모하는 내용이며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공약으로 걸고 있다. 순교 소식을 접한 스미스 장로는 서둘러 귀향했다. 그는 윌라드 리차즈와 뜻을 같이 하여 카테지 사람들에게 복수를 피하는 일을 반대했다.

카테지에서의 고통과 뒤이은 서부로의 이동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오만 형제의 기록에 따르면, 조지 에이 스미스는 훌륭한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다. “개척자와 정치가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쾌활했다. 그의 파이우트족 인디언 이름은 ‘스스로를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무더운 날씨에 열린 스테이크 대회 동안 그가 자신의 가발을 벗어 그것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의 몸 어디에서도 거드름 피우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일생동안 실천적인 삶을 보여준 조지 에이 스미스는 1875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배스쉬버는 35년간을 미망인으로 지냈다. 자신에게 기대어 마지막 숨을 거둔 그의 죽음은 배스쉬버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이후에도 배스쉬버는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생활했다. 그녀는 데저릿 병원의 이사회에서 봉사했으며 성전들이 완성됨에 따라 성전과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일했다. 그녀는 1842년에 나부에서 조직된 첫 번째 상호부조회의 일원이었으며 지나 디 에이치 영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있는 동안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영 자매가 세상을 떠난 후, 스미스

사진 촬영: 조 엘 헤이트 / CHURCH NEWS 제공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가 약혼녀인 배스쉬버 윌슨 비글러에게 영국에서 인쇄된 물문경 한 권을 건넸다.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1901년부터 1910년에 숨을 거둘 때까지 봉

사했다. ■

2007년 5월 5일자 Church News 에서 각색

## 관개 사업이 말레이시아의 15개 마을에 혜택을 준다

**사**라왁의 시문잔 교차점 지역 외곽에 있는 15개의 말레이시아 마을은 교회의 인도주의 사업 중의 하나인 후기 성도 자선 단체(LDSC)의 도움에 힘입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게 되었다.

100여 명의 젊은이와 노인들은 LDSC

에서 제공한 보급품들을 이용하여, 댐을 확장하고 이 지역에 있는 마을들에 지름 8센티미터의 수로를 설치하는 일을 불과 몇 달 안에 모두 끝냈다.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라고 홍콩 소속 교회 대변인인 조지 맥은 말한다. 그는 아시아 전

역에서 이루어진 여러 프로젝트들을 보아 왔다. “그러나 댐이나 우물, 또는 다른 공급원이 마을에 설치될 때 ...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과거에도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는 있었지만 그 양이 대개 한정되어 있었고 몇 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물을 길에서 나르기 위해 가족이나 일터를 떠나야 했고 어린이들은 한꺼번에 몇 시간씩 수업을 빼먹곤 했다.

교회가 지원하는 인도주의 사업들은 가능한 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도와 좀 더 자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업의 완수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마을 지도자인 어거스틴은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오직 하늘 만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을지 아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 행사에서 마을 주민들과 말레이시아 연방 의회의 의원인 지미 도날드를 포함해 그 밖의 방문객들도 말 씀했다.

행사는 수로가이 시작되는 댐 근처에서 열렸다. 보통 이 지역은 등반하기에 매우 험악한 지형인데, 마을 주민들이 정글의 나무를 자르고 파내어 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위험한 계곡을 가로지르는, 손수 만든 몇 개의 대나무 다리 만드는 일도 들어 있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관료들은 밸브를 열어 물이 작은 물탱크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 ■



마을 지도자들과 교회 회원들이 자신들이 설치한 새로운 물 공급시설의 꼭지를 돌리고 있다.

## 2007년 9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주님 봉사하셨네”를 참조한다.

1.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임을 설명한다. 복음 그림 패킷 218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여준다. 그림 뒤에 있는 글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는지 설명한다. 누가복음 10장 30~3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어린이들에게 따라 읽게 한다. 어린이들이 이야기에 친숙해지면 네 명의 어린이들에게 이것으로 연극을 해 보도록 부탁한다.(“연극”을 참고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72~173쪽) 어린이들에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다친 사람의 역할을 하게 한다. 어린이들이 연기하는 동안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읽는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구절로 돌아간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한 가지 목적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 있을지 묻는다.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소책자를 보여준다. 8쪽, 9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 아래에 나와 있는 제언들을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좀 더

예수님처럼 되라는 도전 과제를 준다.

저학년 어린이를 위해: 몸의 여러 부위들을 가리키며 어린이들에게 자신들 몸의 그 부위를 통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게 한다. 예를 들어 발에 대해서는, “저는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다른 방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라거나, 귀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가르치셨다. “주 예수를 닮으려고”(어린이 노래책, 40~41쪽; 성도의 벗, 1990년 4월 호, 어린이안 54~55쪽)를 부른다. 어린이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이 한 문장씩 부르게 하고 “나” 부분을 부를 때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한다. 후렴구는 다 같이 부르게 한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간증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증한다.

2. 앞부분에 “□217 수수께끼”라고 쓴, 큰 종이들로 만든 책을 전시한다. 첫 번째 장을 펴고 “□217이란 무엇인가? 힌트: 이것은 봉사에 관한 성구이다.”를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성구(모사이야서 2:17)를 살펴봄으로써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초등학교의 어린이들 중 절반은 성경의 목차에서 □으로 시작하는 책을 찾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몰몬경의 목차를 펴고 똑같이 찾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으로 시작하는 책에서 2장 17절 부분을 살펴보게 한다.(예를 들어, 말라기 2:17) 어떤 책에는 2장

17절이라는 구절이 없음을 지적한다. 그들이 봉사와 관련된 한 특정한 성구를 찾고 있다는 힌트를 다시 한번 준다.

어린이들이 모사이야서 2장 17절을 정확하게 밝혀내면, 그들이 원할 경우 성구에 밑줄을 긋게 한다. 이 구절은 어떻게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지 말해 준다고 설명한다. 책의 다음 장에 있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를 보여준다.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책장을 넘기게 한다. 복음 그림 패킷 612(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와 611(감독), 607(교회에서 말씀하는 어린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가정 안에서 돕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초등학교 그림 패킷에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추가한다.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어린이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어 자신의 책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종이를 반으로 접게 하고 표지에 “□217 수수께끼”라고 쓴 다음, 표지 안쪽에 성구를 옮겨 쓰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다음주 동안 주님께 봉사할 방법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쓰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가정의 밤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한다. 한 주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

##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11년 하고도 4개월, 그리고 3일. 강산이 한 번 변하고 또 몇 걸음을 더 디딘 그 시간 동안 김현분 자매는 성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요즘처럼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시대라면 강산이 서너 번은 변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실제로 김현분 자매가 처음 봉사했던 그때는 아직 백 원짜리 과자를 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과자 가격이 다섯 배쯤 뛴 것은 둘째 치고라도, 사회 전반의 변화는 그때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집인 성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전에 깃든 주님의 신성과 성전만이 가지고 있는 고요하고 정갈한 느낌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른 듯 십년 전과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십년의 세월을 보낸 김현분 자매는 올해 일흔다섯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하고 활기칩니다. 비결을 물으니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성전에 있으니까 그렇지유.”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김현분 자매는 남편인 안희운 형제와 함께 1987년 3월 3일부터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형제의 성화 때문이었다고 김현분 자매는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큰 열의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남편을 위해 세계 수단도 팽개친 채 무작정 선교 사업을 나왔던 그때를 생각하며 김 자매는 미소를 짓습니다. 축복사로 봉사하기도 했던 안희운 형제는 김 자매에게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친구였으며, 신권 지도자였고, 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기꺼이 고생을 감내할 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5년 6개월을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1998년 4월 29일, 안희운 형제가 주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현분 자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40여 년 세월을 함께한 영원한 동반자가 떠난 상실감 때문에 김 자매는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교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생전에 남편과 했던 약속, 최대한 오래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자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 아니라 성전에 있으면 남편인 안 형제와 함께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슬픔은 멀어지고 그 자리에 화평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며 수많은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김 자매에게는 지난 시간 동안 큰 병 한 번 없었던 것도 기적이요 축복이며, 자녀들과 손자들이 건강한 것도 다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또한 안 형제의 따뜻한 위로를 언제나 곁에서 느끼는 것도 기적입니다. 김현분 자매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김 자매는 “주님의 집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런 김

자매에게 최근 생긴 고민은 한국에서 성전 선교사로 나오는 회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전부 미국에서 나온 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김 자매는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한국 실정상 부부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 자매는 한 명이라도 더 성전에서 봉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총 여섯 번을 봉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 성전 선교사로 일한 김현분 자매의 마음은 아직도 성전에 있습니다. 잠시 성전을 떠나 어딘가에 다녀올 때마다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가슴이 뛰어 발걸음을 서둘렀던 김현분 자매의 11년 4개월 3일. 김 자매는 이제 성전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성전 선교사로 나오기를 독려하는 간절함으로, 아직도 남편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애뜻함으로,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

# “청소년 대회에서 간증을 수확하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회에서 여름 태양만큼이나 강렬한 간증을 한아름 가지고 왔다. 그들의 간증을 소개한다.

## 김소영 자매 (울산 지방부)

몇 주 전, 지부 회장님께 이번 청소년 대회 일정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울산 지방부로 바뀌면서 새로 만난 청소년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로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하이킹'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하이킹은 두 개 조가 한 팀이 되어 초기 개척자들이 시온을 찾아 떠난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던 산길을 지나 목적지에 찾아가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중간 중간 길을 잃고, 무전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마다 너무 무섭고, 앞이 막막했습니다. 하이킹을 통해 신권을 가진 형제를 지지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운 곳에서 활동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먼저 자신 스스로가 봉사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은 제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 김지혜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이번 청소년 대회를 위해서 청소년들과 고문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모임에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대회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기에 바쁜 고문들이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 항상 애쓰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 회장단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고문들이 저희를 아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 체험, 체육 대회, 물놀이, 쇠막대, 산행, 그리고 무도회에 이르기 까지 끊임없이 청소년들을 보살펴주시는 고문들에게 감사했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계획하고, 진행했던 청소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랑과 간증을 갖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선 우리 청소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제 성구였던 교리와 성약 122편 7절의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 줄 알라.”는 말씀처럼 청소년들은 모두 힘들었지만 소중한 추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 박재훈 형제 (서울 북 스테이크)

이번 청소년 대회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청소년 대회를 참여하면서 저에게 가장 부족하였던 부분인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테이크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 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조장을 맡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조장을 하다 보니 조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리더를 맡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 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고 또 청남들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많이 부족했던 리더십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스테이크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교회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훗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신현진 자매 (순천 지방부)

아빠께서 이번 청소년 대회가 도보 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제 몸도 무거운데 잘 걸을 수 있겠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청소년 대회에 꼭 참석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대회 첫째 날은 16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저희 대대에서 제 배낭이 가장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걸었을 때 점점 뒤통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5시간쯤 걸었을 때 저는 다른 대원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통졌습니다. 그때 저보다 동생인 이수빈 자매가 다가와서 “언니 곧 있으면 도착이야.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며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가 야영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희 대대원들 모두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가벼운 짐조차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허벅지가 헐고 날씨가 더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걸어서 뒤통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시 저에게 혼자서 이 거리를 걸으라고 한다면 저는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긴 거리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번 도보 여행 때 보여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청소년 대회가 힘들었던 것만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회 내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뽕뽕 뭉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 이수휘 자매 (청주 스테이크)

이번 청소년 대회를 참석하기 전에 고3 여름 방학 동안이라 담임선생님이 많이 반대하셨지만, 저는 제가 당연하게 청소년 대회를 선택한 것에 대해 뿌듯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소백산 등반이었습니다. 소백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꽃과 나무가 아름답고, 푸르고 넓은 들도 아름다웠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날에 했던 세미나는 저희들끼리 경험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고 부모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특별했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지금의 부모님들처럼 자녀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생활 하도록 권유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대회는 청소년 시기에 신앙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앞으로 남은 마지막 동계 청소년 대회가 기대되고 그곳에서도 또 다른 특별한 느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예정 자매, 최선 자매, 최한나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7미터짜리 실물 망루를 만들고 있는 울산 지방부 청소년들

\* 같은 와드 소속인 이 청녀들은 모두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회에 참석했다.

**이예정 자매** 저는 중1때부터 하계 청소년 대회, 동계 청소년 대회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올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수시 시험 일정이라든지, 학원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청소년 대회는 안식일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모님께서도 공부보다 청소년 대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3이든 중학생이든 청소년 대회는 모든 청소년이 다 참석해야 한다고 하시고 저도 청소년 대회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공부하는 것과 학원 수업, 학교 보충 수업이 중요하지만, 청소년 대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간증을 나누는 것이 더욱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 자매**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학교 보충 수업을 빠져야 해서 청소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만 청소년 대회에 참가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장을 맡게 되어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준비된 프로그램에 대대원들과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6학년 때부터 청소년 대회에 참가해왔지만 이번이 가장 특별했고 기억에 남는 청소년 대회였습니다.

**최한나 자매** 7월 28일 토폰 시험 날짜가 청소년 대회와 겹쳤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을 포기하면 시험 칠 기회를 잡기 힘든 한국 사정상 언제 다시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을지 불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시험을 취소하고 일단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번 시험 기회를 얻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래 화요일마다 열리던 토폰 시험 접수가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금요일에 갑자기 열렸고, 저는 무사히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소년 대회를 통해 느낀 점과 배운 점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힘과 하나님 아버지의 방편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전도서 11:9)

여름이 돌아왔다. 더불어 후기 성도 청년 독신들의 발걸음도 바빠진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젊은 열기와 신앙이 가득한 청년 대회를 위해 준비하고 희생한다. 올해는 전국 다섯 개 종교 교육원 별로 청년 대회가 진행됐다. 여러 스테이크가 모이는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았다. 하지만 이 여름, 청년 대회에서 길어 올린 시원한 간증 한 모금씩을 전하고자 한다. 후기 성도 청년 독신들은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한 뒤에 간증 나누기를 아끼지 않았다.

## 손흥욱 형제 (서울 동 종교 교육원)



23년 동안 홀로 교회에 다니면서 가족 회원들이 부러웠던 저에게 청년 대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회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건 아주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대회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전국 청년 대회를 포함해서 대회에 열두 번 참석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간증과 복음의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면서 지도자님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거나 혹은 준비된 모임을 취소하라고 권고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였을 때 그것은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간증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 모임을 준비하는데 사람의 경험이나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이번 청년 대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의 소중한 기억은 매년 8월이면 제 가슴속에서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소중한 경험과 간증들은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지 제 자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지상으로 와야 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 안의룡 형제 (부산 종교 교육원)

이번 청년 대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대회였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혹시나 ‘결혼에 관한 프로그램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 하에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것은 산행과 무도회였습니다. 힘든 산행을 하면서 지친 자매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주는 형제님들이 계셨으며 처음 청년 대회에 온 형제를 위해 먼저 다정하게 다가가서 춤을 가르쳐주고 배려해 주는 자매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자신을 잊고 다른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회 주제 성구를 머릿속에 되새기며 청년 대회를 보내면서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승영의 고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미나리-선교 사업-성전 결혼-승영’이라는 단계가 바로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헌신할 때 더 가까이 오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준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섰듯이 우리 모두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승영에 이를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 이창엽 형제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저에게 이번 서울 서 지역 합동 청년 대회는 선교 사업과 군복무로 인해 4년 만에 참석했던 대회이기에 더욱 뜻 깊고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라는 최윤희 장로님의 권고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3박 4일 동안

대회의 목적대로 서로가 한 가족임을 느끼고 형제애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복무 기간 동안 후기 성도 청년들과 오랫동안 이러한 영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었던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참된 복음 안에서 같은 신념과 신앙과 정서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후기 성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랑과 간증을 나누었던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은 수없이 많지만, 저는 이번 대회에서 훌륭한 청년들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서로 나누어주며 서로에게서 덕을 찾고 강조할 수 있었던 시간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만큼 이 복음 안에 속한 저의 훌륭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서로의 모범을 통해 많이 배우고 발전하며, 영적으로 고무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훌륭한 지도자분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권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정윤희 자매 (중부 종교 교육원)



이번 중부 종교 교육원 청년 대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청년 대회와 다르게 스스로 찾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대원들과 단합해야만 했던 대회였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활동은 하루에 몇 대 밖에 없는 버스를 잡아타고, 부여 시내 백제 유적지로 나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경전과 대대원의 아이디어를 뭉쳐 역사적 지식과 함께 주어진 임무를 풀어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점심마저도 아침마다 미리 지급되는 당일 예산 안에서 지정장소에 가기 전 준비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활동은 고난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였고, 대대원들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다음 관문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합을 배우고,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해져 갔습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를 보내면서 제 신앙의 나무엔 물이 차고, 거름이 더해졌습니다. 부여의 사랑, 궁남지에서 미션을 수행하던 셋째 날, 연꽃을 보았습니다.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은 더러움은커녕, 깨끗하다 못해 순결한 빛을 자아내며 자태를 뽐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연꽃들을 주섬주섬 제 마음에 심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 언뜻 길다고 느꼈지만 어느새 돌아갈 날이 왔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짐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느낀 청년 대회였습니다.

#### 최승훈 형제 (광주 종교 교육원)



이번 청년 대회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때문에 타지로 떠나있었던 여동생과 선교 사업 및 군 생활로 4년간 집을 비웠던 제가 함께 모여 삼남매가 처음으로 함께 청년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잊고 있던 형제간의 사랑을 다시 느꼈고,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들을 청년 대회를 통해서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년 대회 동안, 주제 성구인 모세서 7장 18절의 시온 백성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롭게 생활하기 위해 조나 대대라는 명칭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이전의 조장과 부조장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가정을 가지게 될 것인지, 부모와 자식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즐겁게 뭉치는 시간도 있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불평하고, 짜증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다를 때 스스로 양보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힘든 순간, 저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 간에 서로 나누고 봉사함으로써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 대회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분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주셨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며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삼남매가 서로 사랑하며 이런 간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참되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대회와 같은 훌륭한 모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특별히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청년 대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실 필요가 없는 모임인데, 오시겠다는 신앙을 행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낮익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고원용 장로의 눈에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과 함께 차올랐다. 필리핀 지역 회장단으로 부름 받은 고원용 장로의 환송 노년의 모임이



7월 22일 저녁 여섯 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워드 예배당에서 열렸다.

고원용 장로와 아내 김은희 자매, 딸 고혜원 자매가 연사로 섰던 이날 모임에는 그 동안 주님의 사업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함께 손발을 맞추었던 신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함께 모여 가족 모임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모임의 시작을 장식한 온누리 합창단의 정갈한 노래가 한여름 안식일 저녁을 더욱 오붓하게 만들었다.

고혜원 자매가 풀어 놓은 이야기 보따리에는 때로는 엄하지만 익살스러운 어머니 김은희 자매와 인자하고 온유하게 가족을 이끄는 아버지 고원용 장로가 있었다. 집안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에피소드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고 자매의 말씀 마지막은 부모님이 보여준 모범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었다. 뒤이어 연단에 선 김은희 자매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은 남편과 함께하며 만난 회원들의 모범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말씀을 시작했다. 스무 살 때 스테이크 회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이 멋있



어서 “스테이크 회장님 같은 신권 형제님과 결혼하게 해 주세요.”라고 꿈속에서도 기도했다는 김은희 자매는 결혼 후 1년 뒤에 남편이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는 간증이 더 커졌다고 한다. 그 후 고원용 장로는 부름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는 미안함을 “교회 부름 받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라는 농

담으로 대신하기도 했다고 한다.

“8월 1일은 한국 성도들에게 해방의 날입니다!(고원용 장로는 8월 1일부터 필리핀 지역 회장단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유쾌하게 던진 고 장로의 농담에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웃음 뒤에는 그간 고 장로와 한국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임에서 흘렸던 눈물과 땀이 배어 있었다.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며 고원용 장로는 무척이나 송구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것을 알기에 고원용 장로의 간증과 권고의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다.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친구의 집에 놀러가고 대화하듯 성전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하며 고 장로는 주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자고 성도들을 격려했다. “교회 안팎에서 때로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참고, 인내하고 돌아설 때 우리의 돌아서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관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말씀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눈물과 웃음소리가 함께했던 노년의 모임은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다. 서로의 마음을 모두 다 전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는지 모임을 마친 후 연단 주변에는 고 장로 내외에게 인사를 전하려는 회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설 새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나누는 고원용 장로와 김은희 자매, 그리고 회원들 사이에 격려와 인사가 오갔으며, 꼭 잡은 두 손은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아끼는 마음을 보여 주었다. ■ <황미주 기자>

# 선교 사업의 영을 전한 에번즈 회장



2007년 8월 5일, 대전 스테이크 센터에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의 감리로 특별 노변의 모임이 있었다. 에번즈 회장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대전 선교부 산하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약 500여명의 회원과 구도자들이 모였다. 대전 스테이크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된 노변의 모임은 대전 선교부 지역의 회원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말씀들로 채워졌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페리튼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를 발전시키며 축복해 주신다.”고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뒤이어 페리튼 대전 선교부 회장은 자신이 대전 지역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봉사한 것과 현재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하면서, “물론경은 또 하나의 성약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관을 쓸 것”이라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진리의 말을 남겼다. 에번즈 회장과 함께 대전을 방문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최윤환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로 대전 선교부 지역의 회원들과 함께 하는 기쁨을 표현했다. 또한 그는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전해 준 간증을

언급하면서 “자녀의 선교 사업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에번즈 회장은 “여기 방문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라는 감회어린 말로 말씀을 시작했다. 그는 페리튼 회장이 40년 전에 대전 지역에서 봉사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40년이 지나고 난 뒤 페리튼 회장이 다시 돌아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일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35년이 지난 후,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부름 받으면서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에번즈 회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 중 좋은 일은 모두 선교 사업을 다녀온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또 이야기했다. “주님께서 선교 사업을 원하십니다. 선교 사업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선교 사업을 가야 합니다.”

에번즈 회장이 전하는 확신에 찬 간증에 참석한 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에번즈 회장은 말씀을 마치며 회원 선교 사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제는 선교사에게만 맡길 시기가 아닙니다. 함께 일할 때입니다. 회원으로서 선교사를 도우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번즈 회장이 전한 분명한 메시지, 선교 사업이라는 네 글자가 대전 선교부 지역 회원들의 마음을 울린 시간이었다. ■

##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http://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노변의 모임** 2007년 7월 29일 안식일, 마산 와드에서 현한양 대학교 석좌 교수이자 서울 남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주덕영 형제를 초청하여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주덕영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바로 알자’라는 주제로 교회가 얼마나 크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주었다.

###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연학 기자>

**청소년 대회** 2007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가평 취용 예술관에서 청소년 66명과 고문 28명 등 총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대회가 열렸다. 첫날 청소년들이 준비한 문화의 밤을 비롯해 등산, 베이스활동, 캠프파이어 등 다양

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체험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으며, 마지막 날 간증 시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간증을 나눔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키울 수 있었다.



**초등회 일일 캠프** 2007년 8월 10일 과천의 청계산 산림욕장에서 스테이크 내의 용기반 어린이 55명과 역원 및 고문 20명 등 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 해설가 다섯 명의 안내로 다양한 숲 체험과 어린이들이 직접 손수건에 나뭇잎 천연 염색하기, 나무로 액자 만들기 등을 하였다.



**전주 스테이크 <이어나 가자>**

**합동 청소년 대회** 2007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주와 순천 합동으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장소는 전북 무주 구천동 일대로 특별한 장소를 정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짐을 직접 메고, 첫날은 16킬로미터를, 둘째 날은 6킬로미터를 걷는 것이 이



번 청소년 대회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대회는 자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접 대대별로 모임을 구성하고 준비물을 분담하여 챙기고 음식부터 잠자리를 마련하는 일까지 스스로 행해야 했다. ■

**새로 나온 교회 책자**

새로운 교회 책자 두 권이 출판됐다. 동성에 문제로 고민하는 회원들을 위한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와 **청녀 야영: 신권 및 청녀 역원 지도서가 그것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는 동성애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회원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창조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은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간단한 진리속에 동성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청녀 야영: 신권 및 청녀 역원 지도서**는 기존에 있던 청녀 야영 지도서에 대한 영적 보충 자료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청녀 야영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2명



**김수영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유타 프로보 선교부



**이한웅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뉴욕 주 뉴욕 북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지부 회장: 문진영(전임: 김영식)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감독: 이준우(전임: 이기영)

**부산 스테이크**  
괴정 지부 지부 회장: 안종원(전임: 김만수)  
대신 지부 지부 회장: 정무정(전임: 김봉술)